

NAM TCHUN MO

Selected Works 2012-2016

LEEAHN GALLERY

NAM TCHUN MO



NAM TCHUN MO

Selected Works 2012–2016

LEEAHN GALLERY

CONTENTS

6

Essay

Towards a Third 'Quality' / Yoon Jin Sup

13

Plates

Selected Works 2012–2016

83

Biography

Towards a Third 'Quality'



제3의 '질'을 향하여

I.

Korean Dansaekhwa has finally come to engag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art circles. The *Frieze* magazine in the UK featured a roundtable on *Dansaekhwa*, carrying the critical reviews written by professor Joan Kee (University of Michigan), Sam & Till (co-curators at Alexander Gray Associates in New York that presented a *Dansaekhwa exhibition* last year) and me. Also, the Taiwanese *ARTCO* 典藏 representing the art world in the Greater China Region carried my writing on Dansaekhwa and introduced the first generation Korean Dansaekhwa artists and their artworks. The foregoing articles were preceded by the feature article on Dansaekhwa in the *ArtAsiaPacific* published in the U.S.A. The magazine coverage reflects Dansaekhwa commands the attention of overseas media.

The attention and competitive coverage of overseas art media is juxtaposed starkly with the attitude of local art communities towards Dansaekhwa. In short, there is no denying that current Dansaekhwa boom driven by a few galleries is preposterously focused on business or sales performance. Such a myopic and superficial attitude toward Dansaekhwa cannot be free from the concern that Korean Dansaekhwa would fail to be recorded in the world art history without scrupulous attention being paid to its dissemination in contrast to the *Gutai Group* and *Mono Ha Art Group* recorded as the most important Japanese contemporary art schools in the world art history. Thus, it is about time that Dansaekhwa needs to be highlighted in terms of theory as well as business.

Another challenge to be addressed is that early Dansaekhwa artists have been in the spotlight mostly, e.g. Kim Ki-Rin, Kwon Young-Woo, Park Seo-Bo, Yun Hyong-Keun, Lee UFan, Chung Chang Sup, and Ha Chong-Hyun. This biased trend led by major local galleries seems likely to exert rather negative impact on the long term outlook of Dansaekhwa. That is to say, the indifference to post Dansaekhwa artists playing pivotal roles in contemporary Korean art world would render this golden opportunity ephemeral.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itance and advancement, now is the time for galleries, art critics and art historians to take academic approaches to Dansaekhwa.

I.

바야흐로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가 세계 미술계에 입성 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Frieze>지는 필자를 포함, 미시건 대학의 조앤기 교수, 작년에 <단색화전>을 기획한 바 있는 뉴욕 소재 알렉산더 그레이 어소시에이츠 갤러리의 공동 큐레이터인 샘과 틸Sam & Till의 논고가 실린 라운드 테이블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발행되는 중화권의 대표적인 미술잡지 <전장典藏: ARTCO>은 단색화에 대한 필자의 글을 싣고 곁들여 한국 단색화 1세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이 일련의 보도는 작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ArtAsiaPacific>지의 단색화 특집에 이은 것이어서 단색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미술언론의 이처럼 높은 관심과 열띤 취재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색화에 관한 국내 미술계의 태도이다. 단언하자면 현재 몇몇 화랑들이 주도하고 있는 단색화 붐은 그 초점이 주로 판매에만 국한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는 일본의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파인 <구타이 그룹>과 <모노하>가 세계미술사에 등재된 사실에 비쳐볼 때, 한국의 단색화는 그 전파가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재 자체가 자칫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단색화에 대한 이론적 조명과 판매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단색화의 조명이 김기린, 권영우,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창섭, 하종현 등 주로 전기 단색화 작가들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의 메이저 화랑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러한 최근의 편향적 움직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색화의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한국의 미술계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후기 단색화 작가들의 활동에 대한 무관심은 모처럼 찾아온 단색화 열풍이 말 그대로 한때의 열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계승과 심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랑계의 관심과 더불어 단색화에 대한 비평계와 미술사학계의 학문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II.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춘모는 후기 단색화 작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가이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글을 쓴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논고에서는 그의 줄 이랑 작품의 의미를 소개하고 글의 후반부에서 작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한 근작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남춘모는 70년대 단색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펼쳐나가는 작가이다. 특히 그의 작업은 '입체 회화' 내지는 '부조 회화' 라는

II.

As a prolific Dansaekhwa artist in Germany and Korea, Nam Tchungmo is one of the well known post Dansaekhwa artists. As I have already reviewed his world of artworks before, this article concerns what the lines and furrows in his artworks imply and describe the dramatic shift in his style displayed in his latest works.

Nam has been developing a world of his own, whilst inheriting the 1970s' Dansaekhwa tradition. In particular, in that his works are 3D or relief paintings, his methodology is distinct from others'. The ㄷ shaped wood frame wrapped with a fabric resembles a casting out from a mold, deserves to be called a "relief painting". It has a certain pattern and frame. The vertical furrows parallel to the canvas frame stand out in bold relief, casting its shadow on the canvas surface. Some might say his denial of 2D plane to stretch the tentacles towards 3D space was preceded by Frank Stella's relief works. Yet, Nam assumes aesthetically more intensive attitude in the sense that he pursues 'corporeality' within a limited frame. Namely, Frank Stella repeated regular lines along the canvas frame in his early transformative canvas works (*What you see is what you see*, Frank Stella), whereas Nam Tchungmo took an aesthetic approach independent of such a painting practice. The different perspectives towards objects between East and West may be attributable to their visual custom manifested in the view of Richard Vine, the editor of the *Art in America*.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Korean Dansaekhwa Exhibition*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Gwacheon in 2012, he questioned "what made Korean Dansaekhwa pieces invariably beautiful" as a rhetoric to emphasize that Korean Dansaekhwa works are incomprehensibly wonder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stern avant-garde tradition which values experimentation. Then, what makes the viewers with distinct cultural backgrounds and views reconcile with each other?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Dansaekhwa is a path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m. In the same vein, the viewpoint of Robert M. Pirsig who authored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An Inquiry into Values* (1974) is noteworthy. He mentioned the ramparts he had seen in Korea as the ground for

측면에서 방법적으로 여타의 작가들과 차별화된다. ㄷ자 형태의 나무틀에 천을 감싸 마치 주조하듯이 제작되는 남춘모의 작품은 가히 '부조 회화'라고 부를 만 하다. 그것은 일정한 패턴과 골격을 지닌다. 캔버스의 프레임에 평행을 이루는 작품의 세로형 이랑들은 캔버스의 표면으로부터 도드라짐으로써 그림자를 생성한다. 2차원 평면을 부정하고 삼차원 공간으로 축수를 뻗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의 선례는 프랭크 스텔라의 릴리프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남춘모의 경우는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 '몸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인 미적 태도를 보여준다. 즉,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변형 캔버스 작품이 캔버스의 프레임을 따라 일정한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나간 반면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다.> 프랭크 스텔라, 남춘모는 그러한 회화적 관례와는 별개의 선상에서 유미적 aesthetic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인과 동양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관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2012년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Art in America)의 편집장인 리처드 바인의 견해와도 유사하다. 당시 발제에 나선 리처드 바인은 "한국의 단색화 작품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아름다운가"하고 질문을 던진 뒤, 이는 실험을 중시하는 서구의 아방가르드 전통에 비취볼 때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견자들 간의 상이한 견해의 차이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화해를 이룰 것인가?

필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색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바로 이러한 화해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도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선禪과 모터사이클을 관리술-가치에 대한 탐구>의 저자인 로버트 M. 피어시그의 관점을 주목해 보고 싶다. 동양의 '미학적 요소(낭만적 유형)'와 서양의 '이론적 요소(고전적 유형)', 소위 '합리적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제3의 '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논의의 근거로 과거에 한국에서 본 성벽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본 성벽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것이 기술공학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대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한국인들의 '자기 초월의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유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 원인으로 '자신과 일을 분리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총체적인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남춘모의 '부조 회화'와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줄무늬 회화 사이의 차이점도 바로 이러한 동서양 간의 사고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곧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은 작화作畵를 둘러싼 전기 단색화 작가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남춘모의 캔버스 속 이랑들은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줄무늬 회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논리적이거나 치밀하게 분석적이지 않다. 남춘모 작품의 날 선 이랑들은 마치 한국의 성벽을 구성하는 돌들이 푸근한 느낌을

an important discussion to seek for a third “quality” that could help overcome the gap between oriental “aesthetic component (romanticist aspect)” and occidental “theoretical component (classicist aspect),” or so called “rational reason,” and integrate the two. He attributed the beauty of Korean ramparts to the workers’ “unique way of looking at the object,” not their reliance 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In other words, he noted Koreans’ “transcendental mind set” and their way of inducing it, ascribable to the mind-set of “not separating oneself from work.” After all, he asserted “the essential solution lies in the very mind-set.”

The difference between Nam’s “relief paintings” and Frank Stella’s early striped pattern paintings may result from the very gap in the ways of thinking between East and West, which is ultimately rooted in their different world views or attitudes towards life. Also, that is a general attitude of early Dansaekhwa artists towards paintings. Obviously, Nam’s furrows on canvas are not as logical or meticulously analytical as Frank Stella’s early stripe patterns. Nam’s sharp-edged furrows and visibly random fluffy fibers feel easy and comfortable just as the stones in the Korean ramparts do, which generally characterizes Korean Dansaekhwa works. Hence, we feel a certain “aesthetic quality” inherent in Korean Dansaekhwa.

III.

Nam’s “relief paintings” are imbued with the cultural genes constantly flowing in the blood of Koreans. Also, an Oriental sentiment underlies his contemporary style. For instance, the light beige color in Nam’s large “relief painting” is reminiscent of the subdued light that penetrates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put on the doors and windows. The color is sort of a neutral zone. It is neither intensely bright nor dark but delicately subdued and toned down. The sentiment of moderation advocated among Koreans is embedded in the color. The worldly wisdom of moderation is honored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deeply associated with their view of nature.



Installation View
2013
Workroom, Cheongdo, South Korea

The mountains and rivers in Korea are not steep but mostly gentle. The mountains draw smooth curves just like women's bosom, forming overlapping ridges, with rivers slowly flowing below. As Nam grew up seeing such mountains and rivers, he must have been inspired by the natural landscape and projected the feeling onto his works.

Nam's recent works limited to black, beige, and white are characterized by larger scale in comparison to his earlier works. Although some of his works show splendid primary colors, e.g. red, blue, yellow and green, the limited neutral colors dominate his works overall.

The winding furrows are much wider, exciting, and refreshing. His earlier works conveyed vertically forthright shapes, whereas his latest works combine ㄷ with ㄴ shapes. The continuously repeated ㄷ and ㄴ shapes create some formative rhythms and are applied to the beige- and black-based works, respectively.

The large beige-colored floor-to-ceiling artwork leaning against the wall catches eyes first among other pieces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Occupying an entire wall space, this piece deserves to be called a painting of objects, bearing traces of conscious efforts to diversify the shapes with some bent outward, ㄱ, and others assuming seagull shapes ^.

Nam added some furrows from different angles to the existing flow of vertical furrows so that they zigzag on a screen. The crisscrossing oblique furrows exert varying effects on Nam's screen, which would otherwise feel monotonous.

IV.

What is the end point of Nam Tchonmo's artwork? Western minimalists do show a definite end point. Frank Stella's precisely delineated stripes just need a painting with some brushwork, which is predictable. By contrast, the end point of Nam Tchonmo's work is where matter and mind encounter each other over time. The artist is far from foretelling the end point because his work comes to an end when his labor and mind reach a contentable state of oneness, which also applies to early Dansaekhwa artists.

주듯이, 천의 보푸라기들이 느껴질 만치 불규칙적이며 푸근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 작품에서 느껴지는 보편적 특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국의 단색화에 내재된 어떤 특수한 '미적 질'이다.

III.

남춘모의 '부조 회화'에는 한국인의 핏줄 속에 면면히 흐르는 문화적 유전인자가 깃들어 있다. 비록 형식은 현대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동양 특유의 정서가 스며 있다. 가령 연한 베이지 색을 띠고 있는 그의 대형 '부조 회화'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구성하는 방문의 창호지를 투과하는 은은한 빛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것은 일종의 중성 지대이다. 빛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완전히 빛을 차단한 것도 아닌, 은은하게 투과돼 한풀 꺾인 빛의 느낌이다. 거기에는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 중용中庸의 미학이 담겨있다. 이 중용의 처세술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연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산하山河는 험준하지 않으며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산은 마치 여인의 젖가슴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 중첩된 능선들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서 강이 천천히 흐르는 게 한국 산하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산하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남춘모가 이러한 자연 풍경에서 영감을 받고 그 느낌을 작품에 투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검정색과 베이지색, 흰색 등 극도로 제한된 색채를 사용한 남춘모의 근작들은 기존의 작품보다 스케일이 큰 것이 특징이다. 물론 적, 청, 황, 녹 등 원색의 화려한 색감을 드러낸 작품들도 있으나 전체적인 느낌은 제한된 중성색이 강하다.

굴곡진 이랑의 폭도 대폭 넓어졌는데, 이는 장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기존의 작품들이 세로로 시원하게 죽죽 뻗은 형태감을 보여주었던 반면, 근작들은 ㄷ자 형태와 함께 ㄴ자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즉, 연속적인 ㄷ자와 ㄴ자 형태의 반복을 통해 리드미컬한 조형적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ㄷ자 형태는 주로 베이지색 작품에, ㄴ자는 검정색 작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벽에 기대놓은 베이지색의 대작이다. 벽에 비스듬히 기댄 이 작품들은 천장에서부터 바닥에 이르는 대작들이다. 한쪽 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종의 오브제 회화라 부를만한 것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벽에 걸었을 때 바깥을 향해 ㄱ 모습으로 꺾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갈매기^ 모양의 형태를 띤 것도 있어 형태의 다변화를 꾀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난다.

남춘모는 근작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죽죽 뻗은 기존의 굴 이랑의 흐름을 다른 각도에서 흐르는 굴 이랑으로 막아 지그재그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나의 화면 안에서 서로 엇갈려 경사를 이루는 굴 이랑의 다변화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남춘모 작품의 화면을 변화무쌍하게 이끄는 요인이다.

Installation View
2015
Leeahn Seoul



At a glance, Nam Tchunmo appears to have given a lick and a promise to his artworks, which is comparable to the typical Korean way of doing things without making unenthusiastic efforts. Yet, a closer look at his unique manner conceiving a Korean-specific independent heart reveals a “mindset” towards nature. What made Nam Tchunmo choose not to finish his artworks with smooth mechanical lines? Presumably, something seated deep in his heart may have spontaneously kept him from employing such lines. An aesthetic spirit within him may have stirred him into overriding the conflict between the Western rationality and Eastern intuition and integrating them. Are Nam’s artworks part of a material incarnation of Pirsig’s so called “transcendental mindset”? If so,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esthetic potential of future Korean art lies in Nam Tchunmo’s artworks.

Yoon Jin Sup
Art critic / Honorary professor at Sydney College of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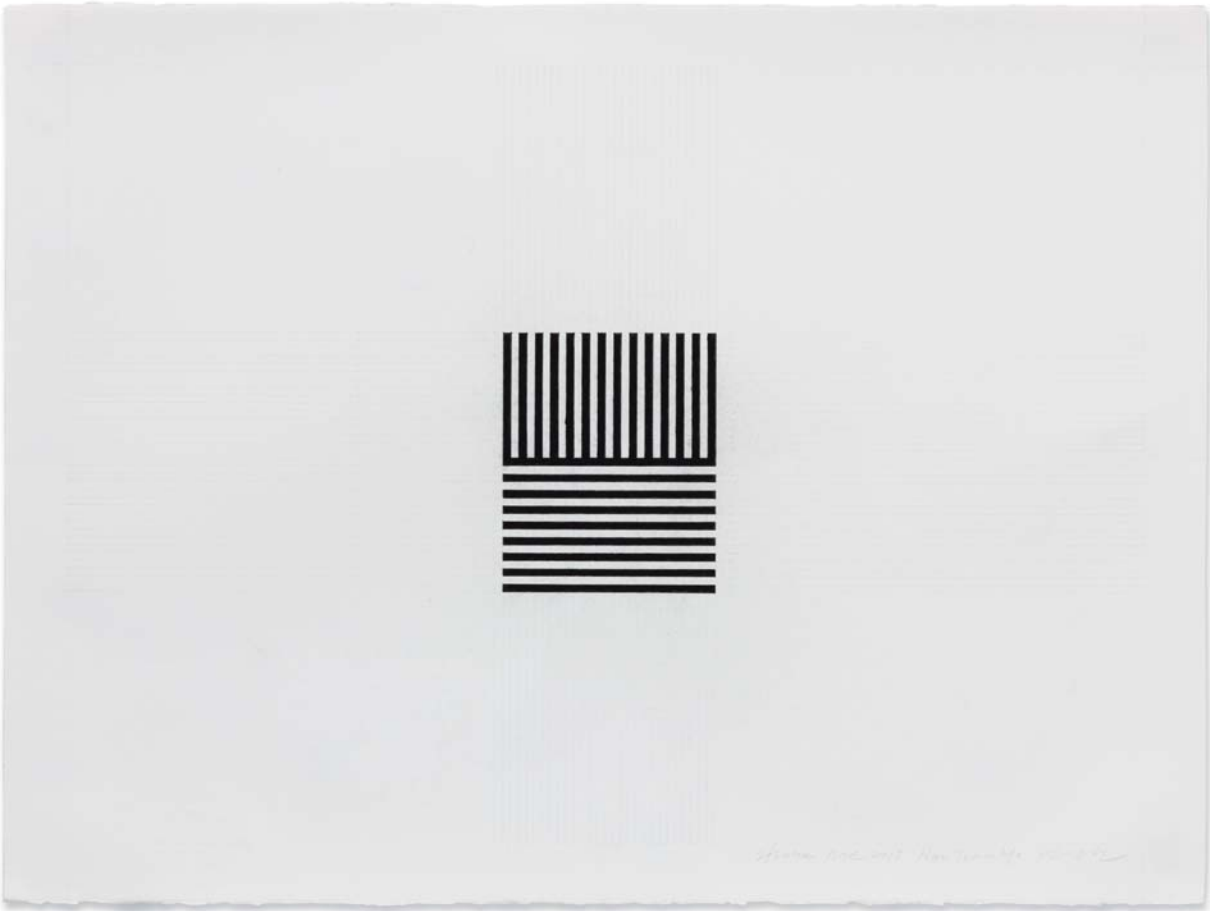
IV.

남춘모의 이 작업이 끝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서양의 미니멀 작가들, 가령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줄무늬 회화는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작도된 선을 따라 물감이 묻은 붓으로 칠할 때 칠을 다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춘모의 작업의 끝은 물질과 마음이 맞닿게 될 시간의 어느 지점이다. 작가는 그 시간의 끝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일과 정신이 만족할 만한 합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끝난다. 또한 이는 전기 단색화 작가들의 작업의 보편적 특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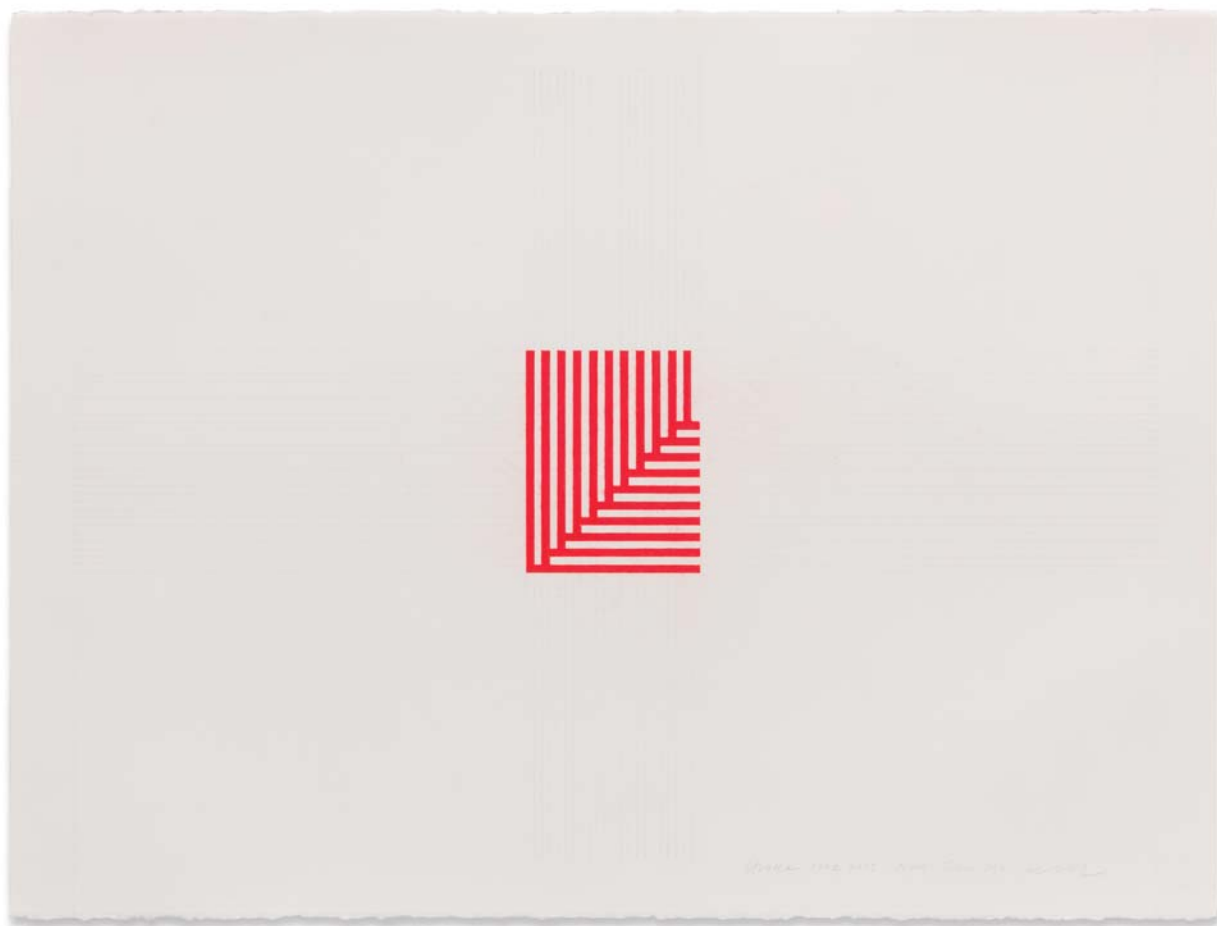
얼핏보면 남춘모의 작업은 한국 고유의 ‘대충주의’ 내지는 ‘적당주의’의 산물처럼 보인다. 한국인 특유의 독자적인 심성을 배태한 이 특유의 행동에는 그러나 그 속에 자연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남춘모는 왜 작품의 끝을 매끄러운 기계적 선으로 마감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것에 대한 생략적인 거부가 일어났다고 본다. 합리적 이성과 동양적 직관 사이의 갈등을 넘어 양자를 통합하려는 미학적 의지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했다고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피어스스가 언급한 것처럼 ‘자기 초월의 마음의 상태’가 질료에 육화돼 나타난 모습 그대로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남춘모의 작업에서 미래 한국 미술의 미학적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윤진섭
미술평론가 / 시드니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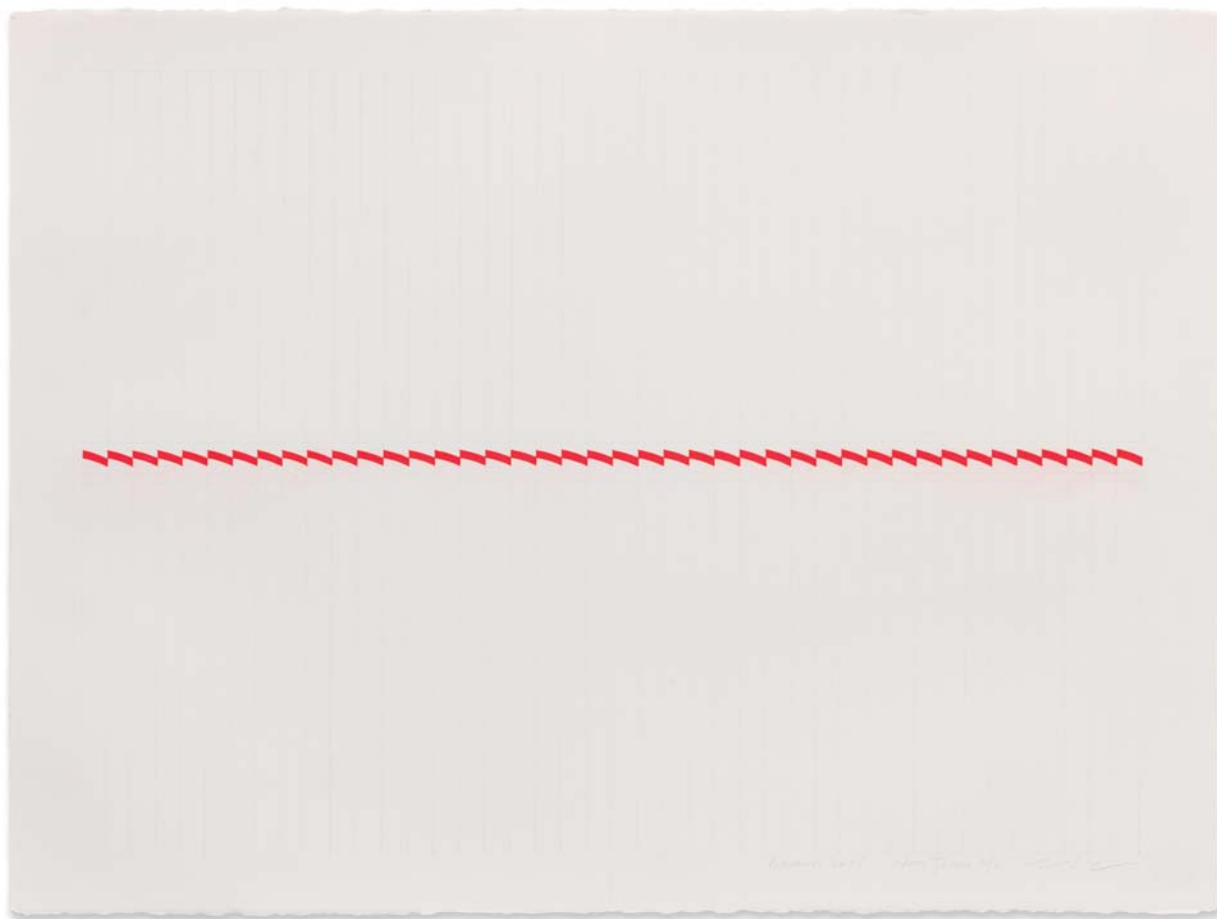
P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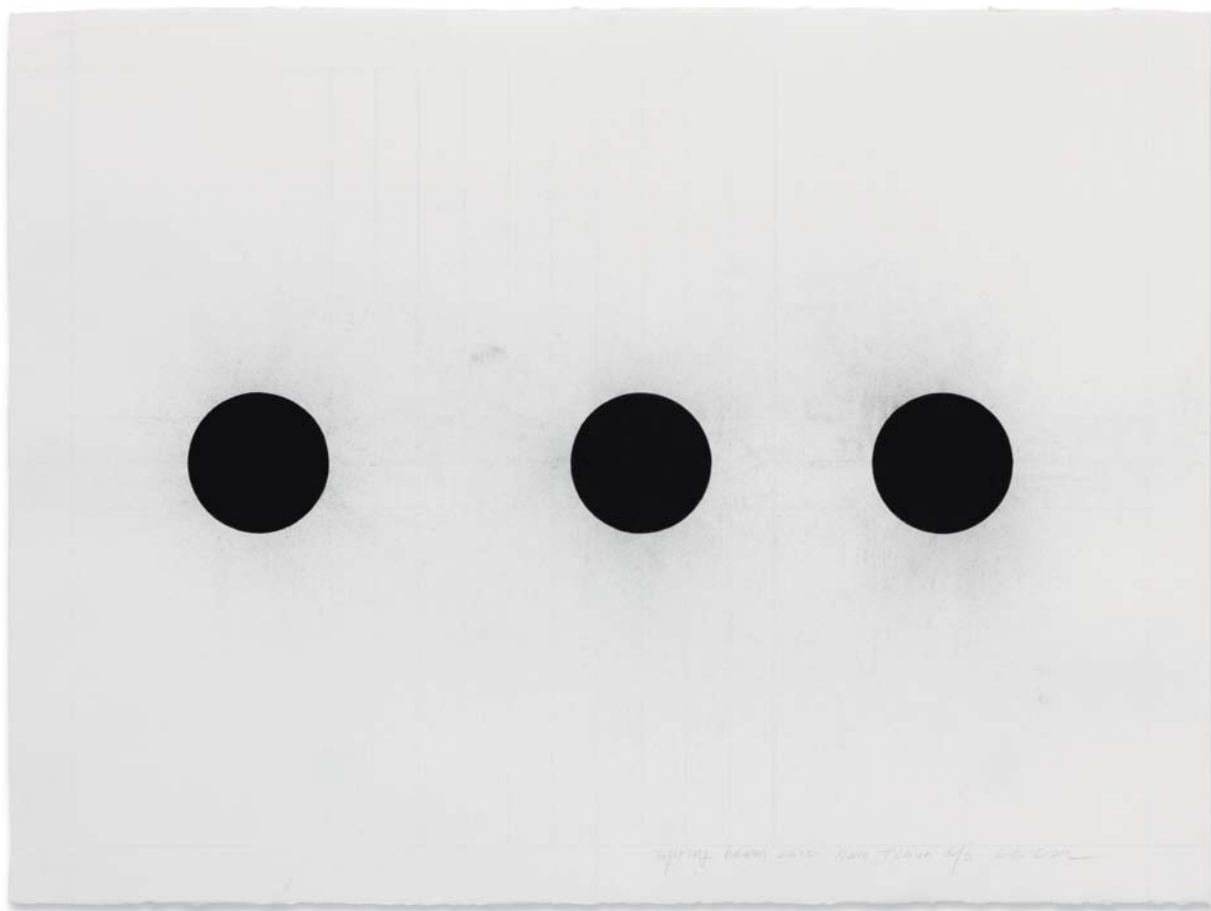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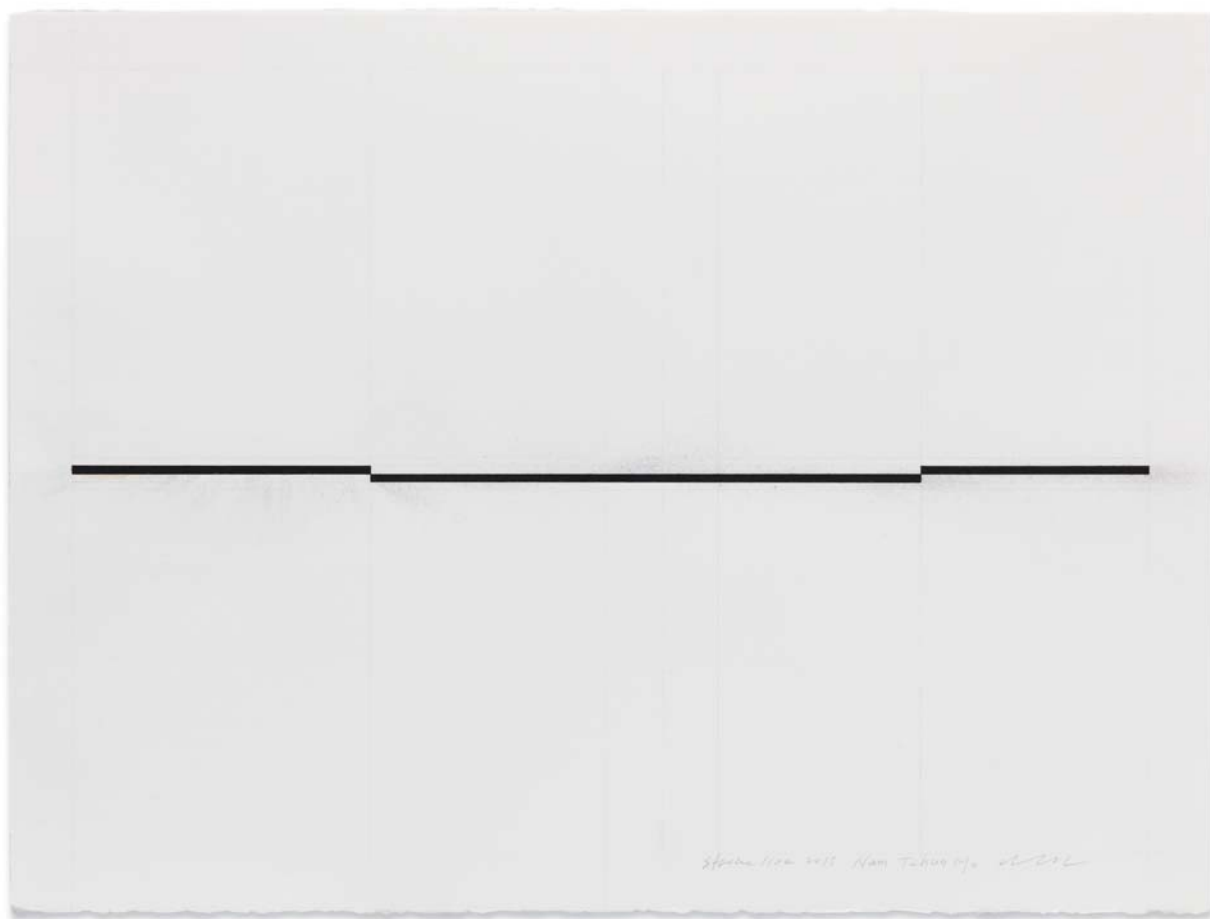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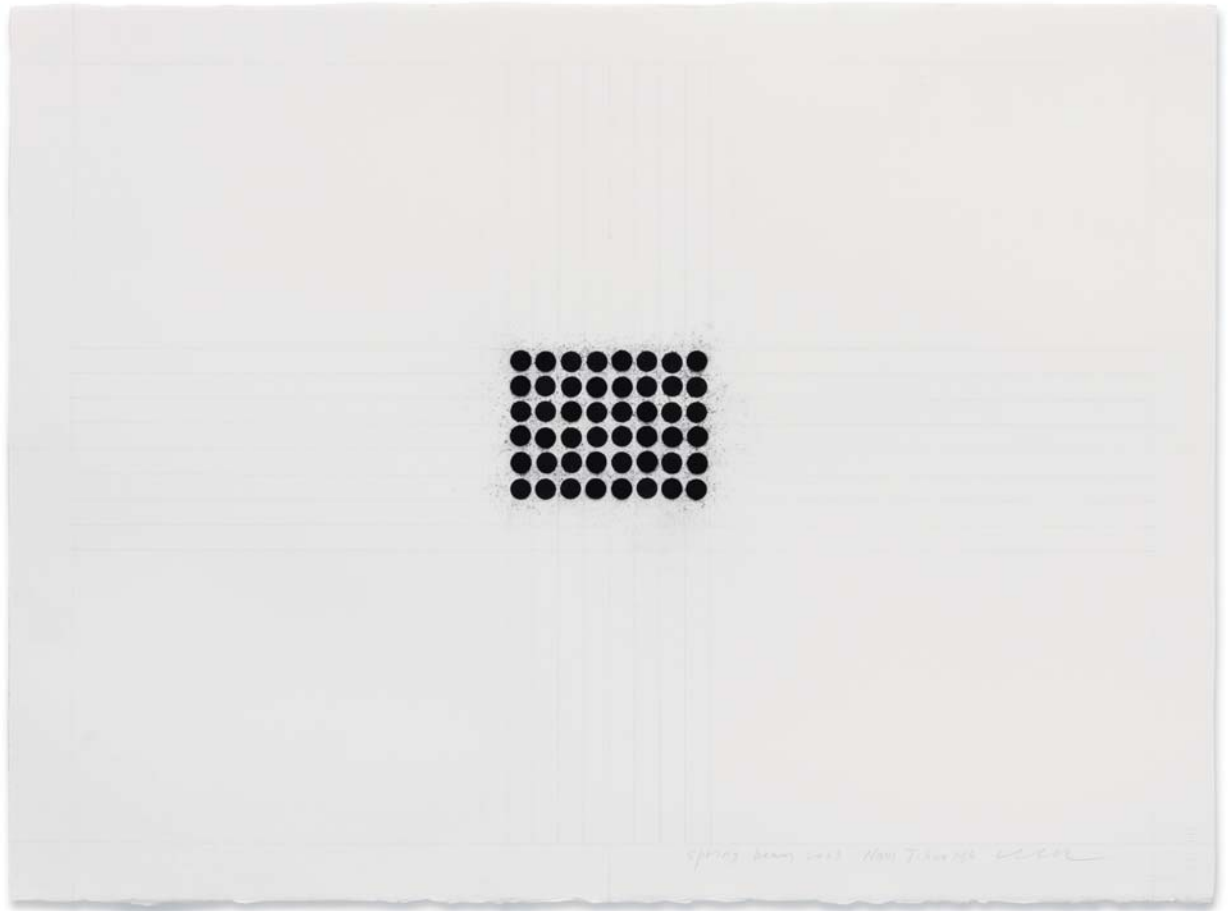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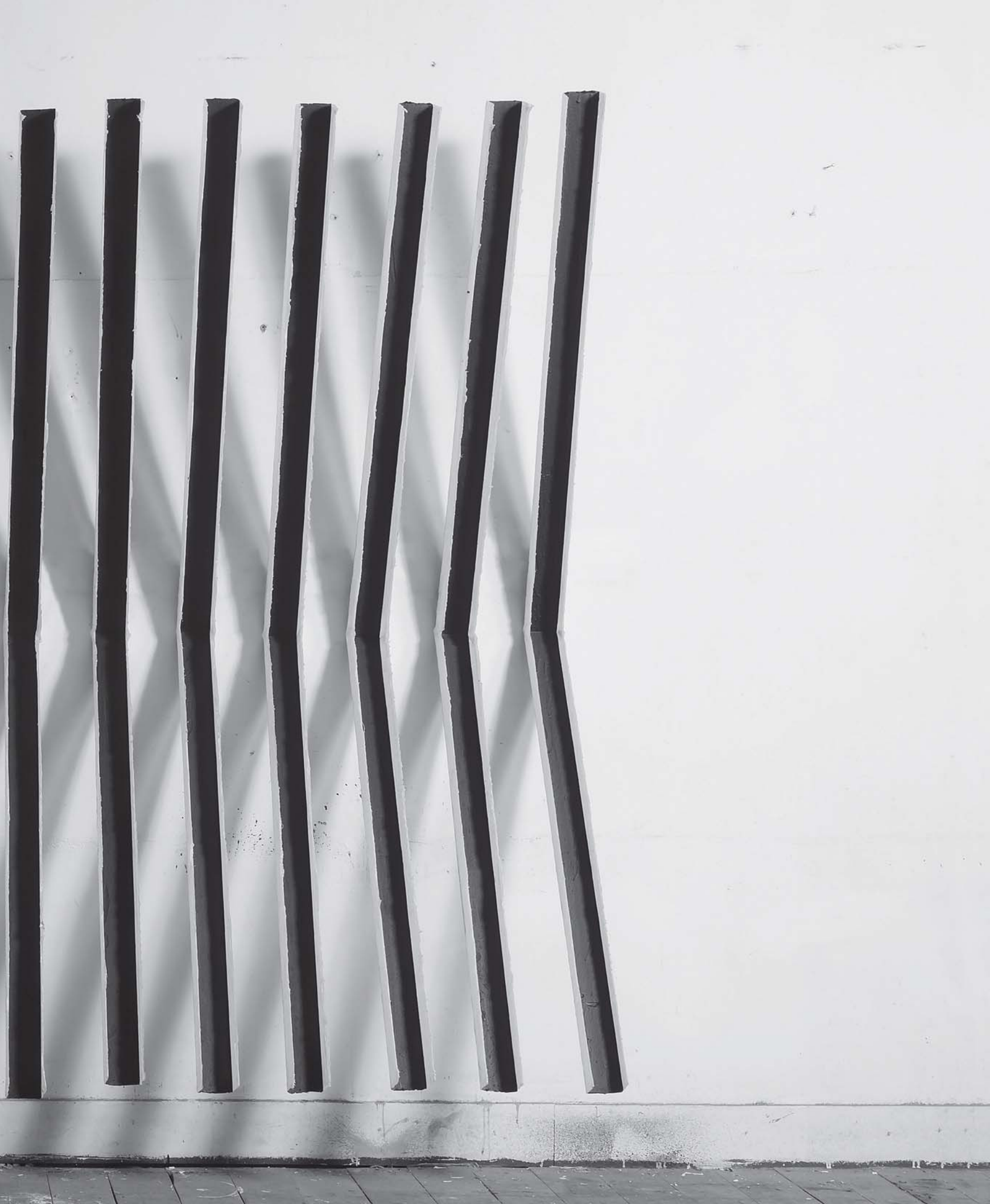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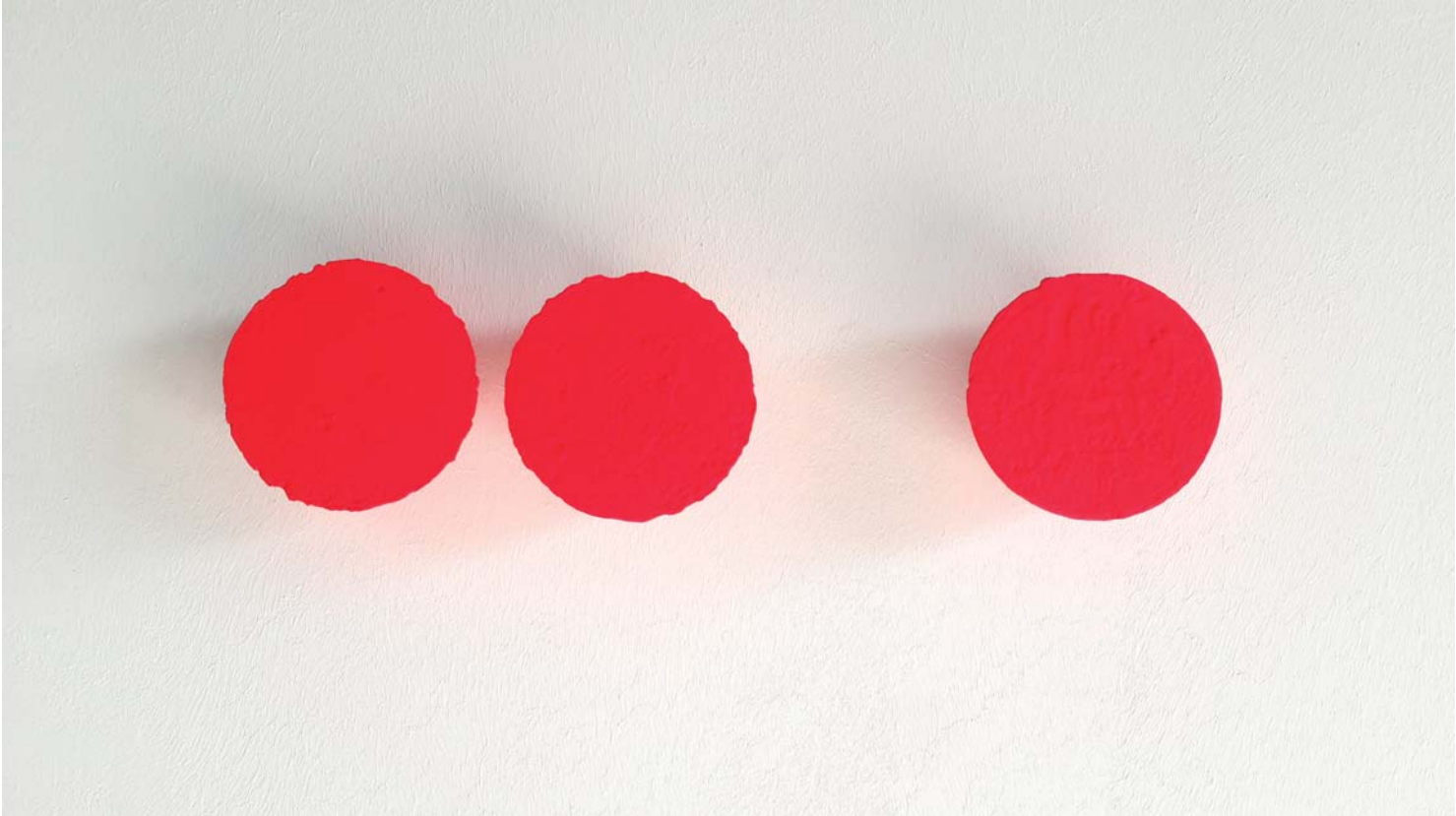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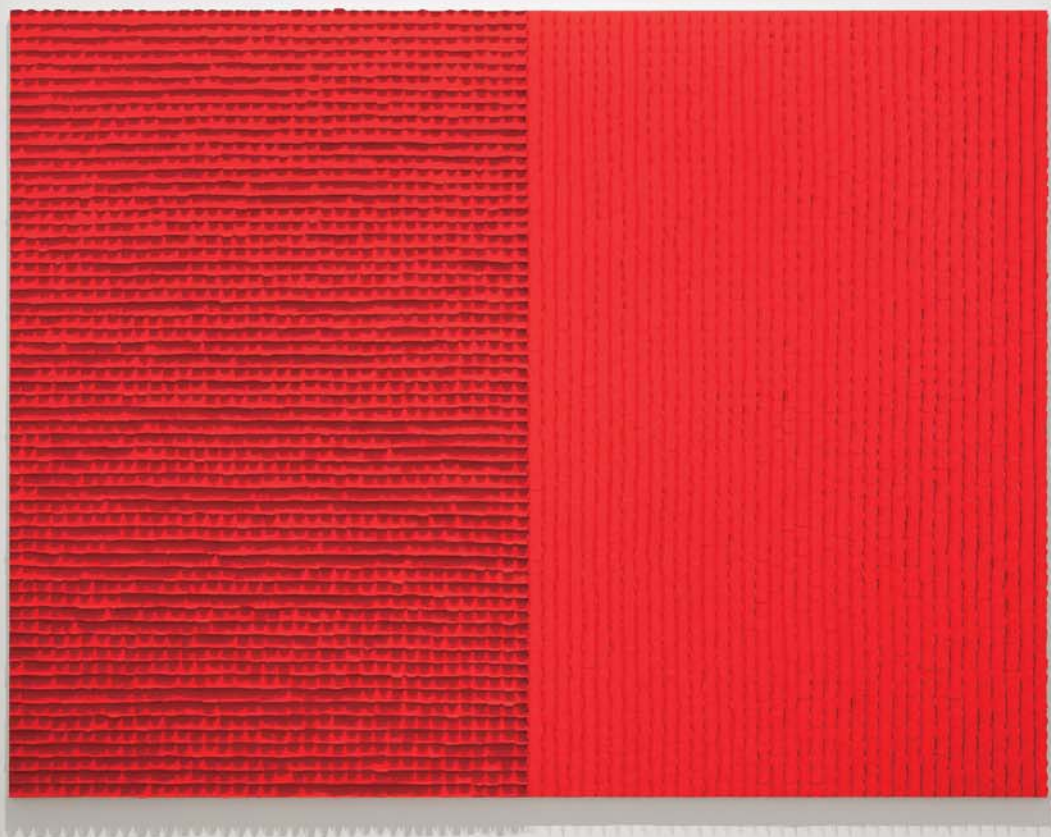


Beam
2015
Mixed Media
125 x 8 x 50 cm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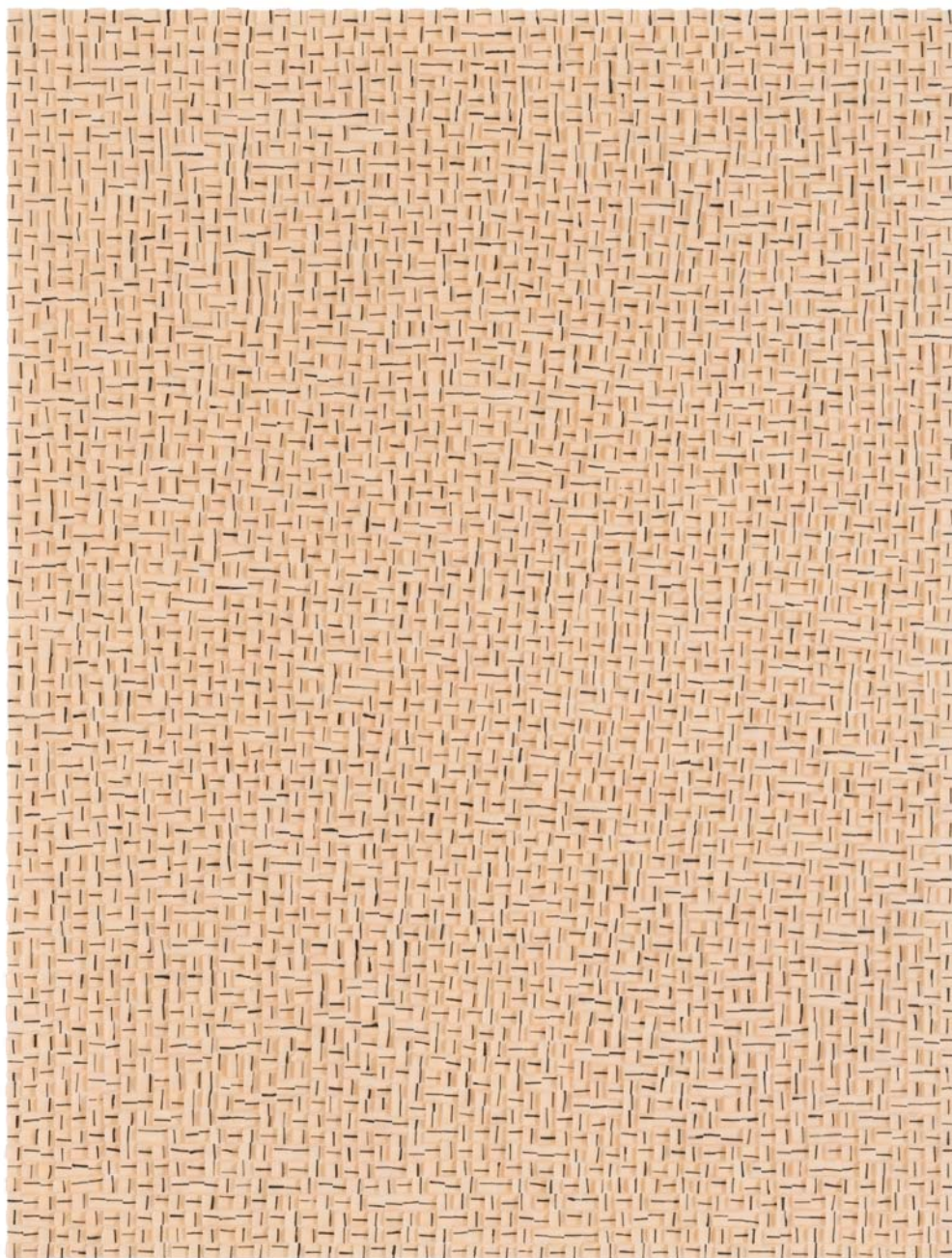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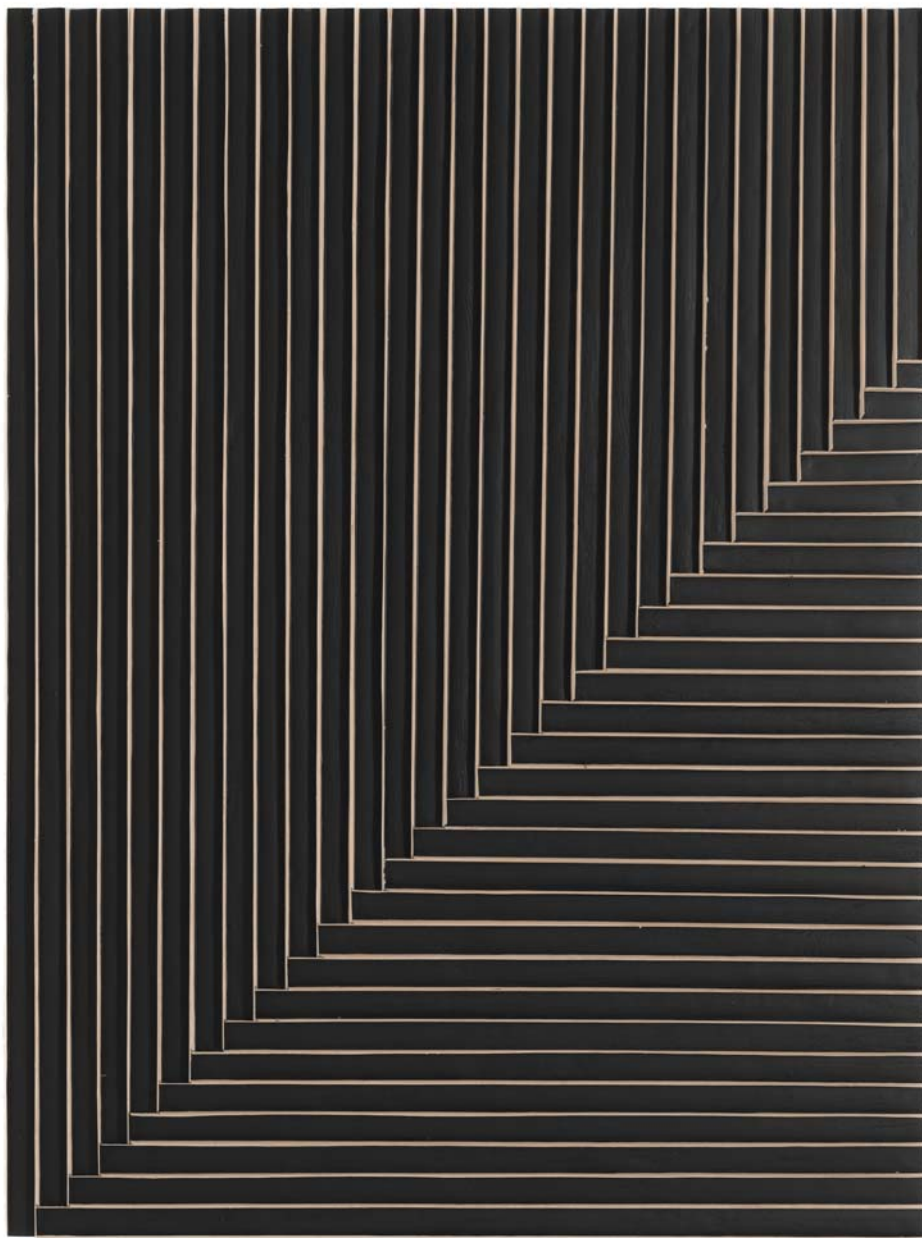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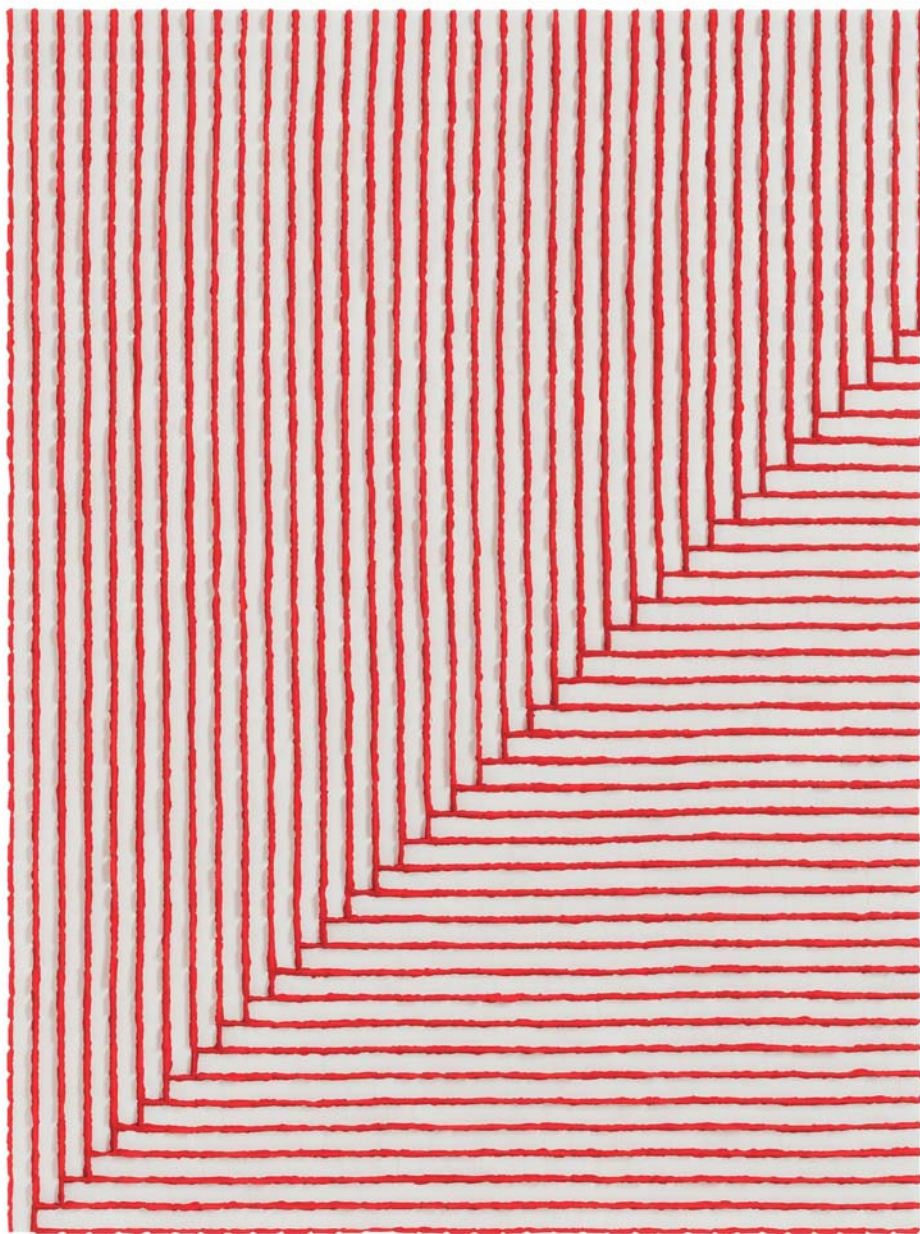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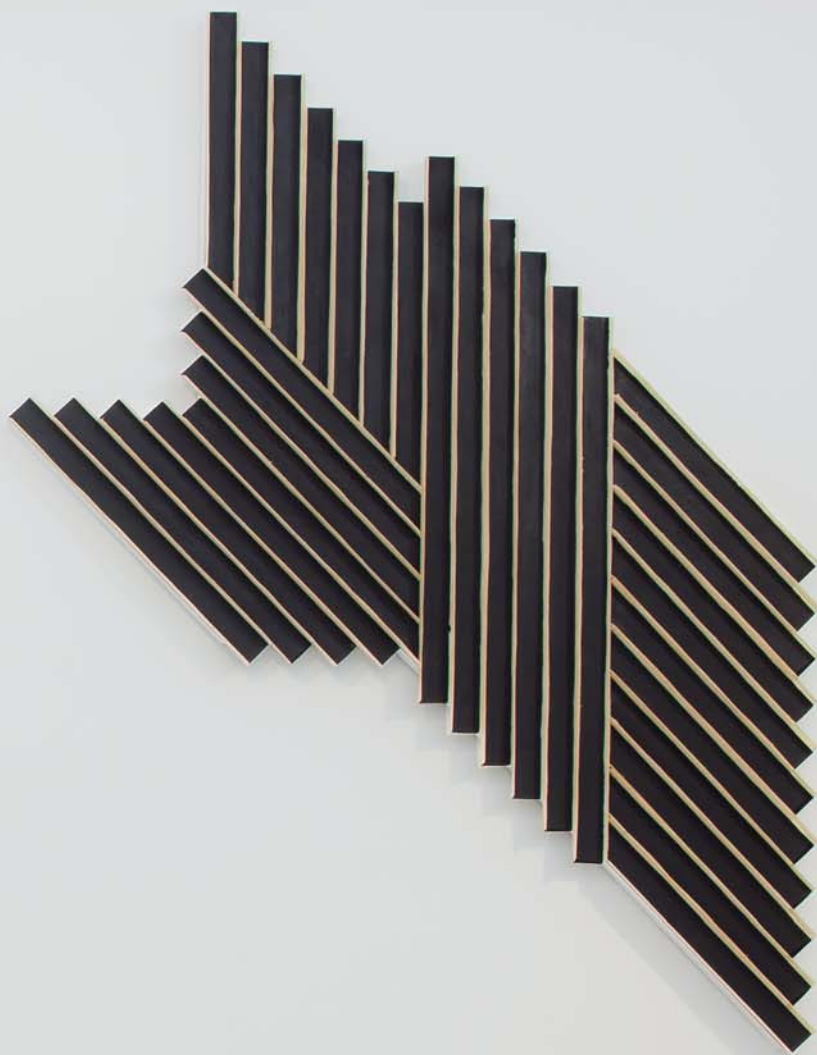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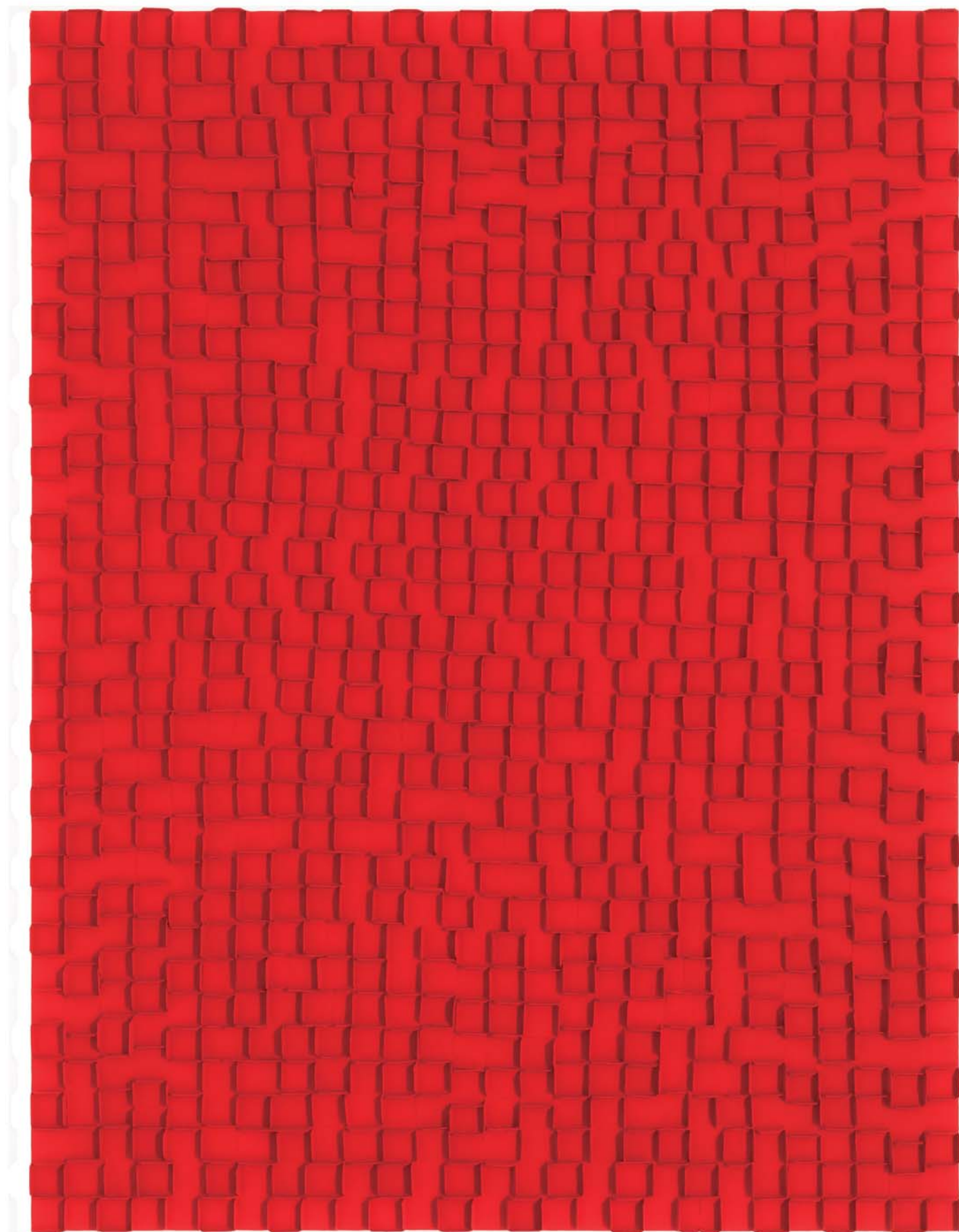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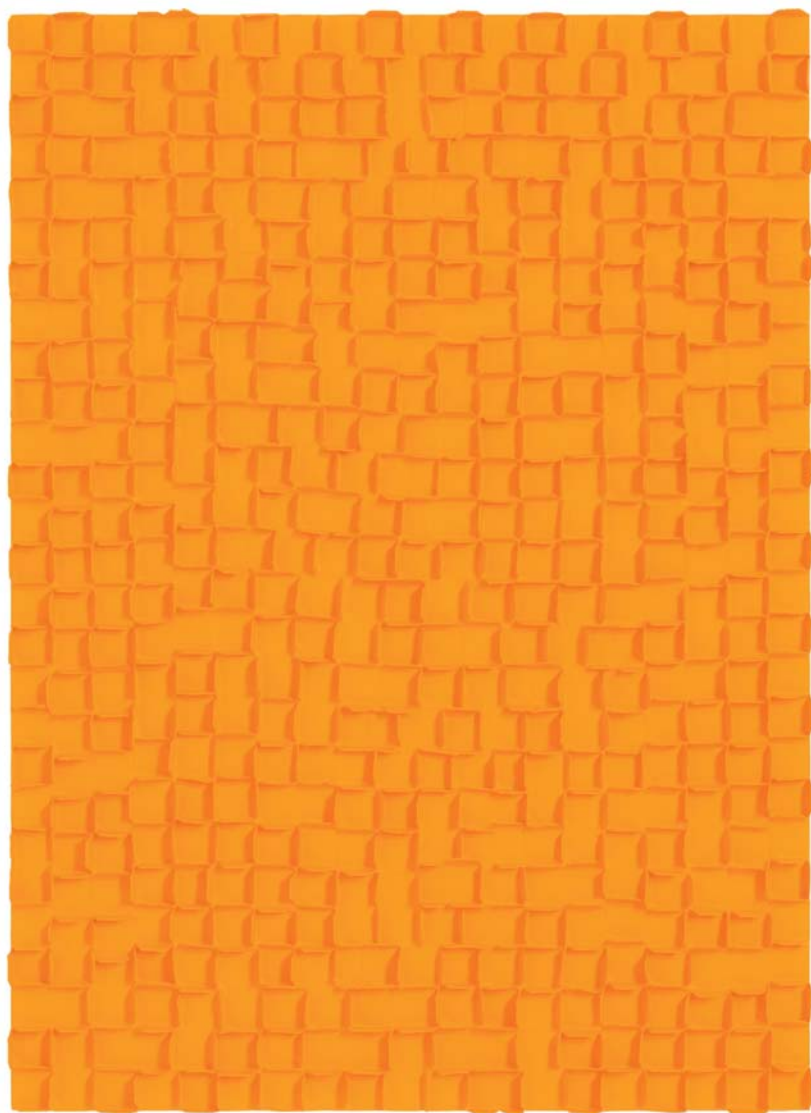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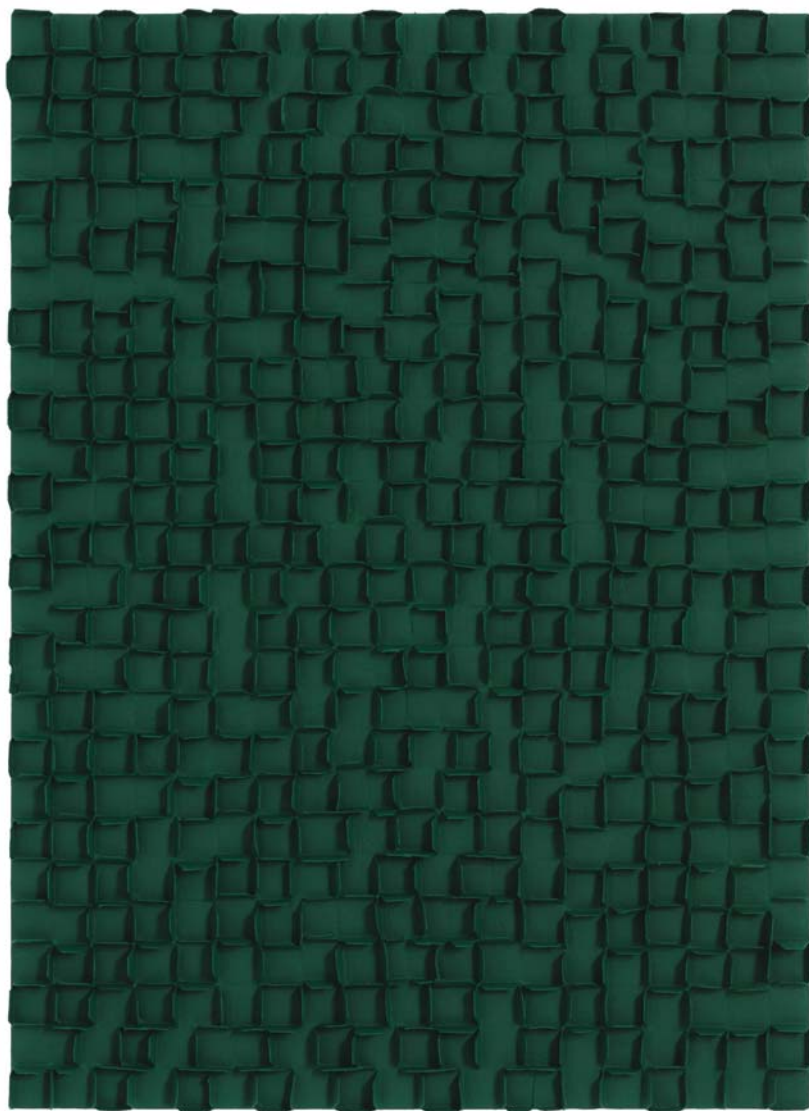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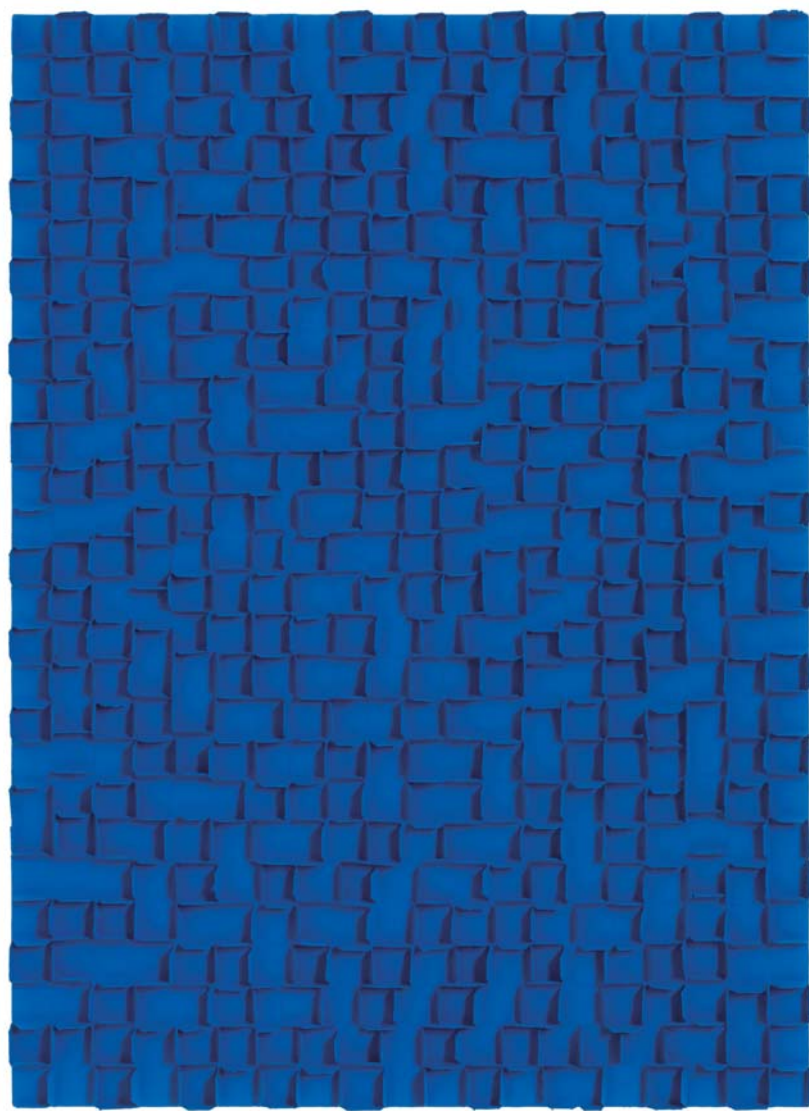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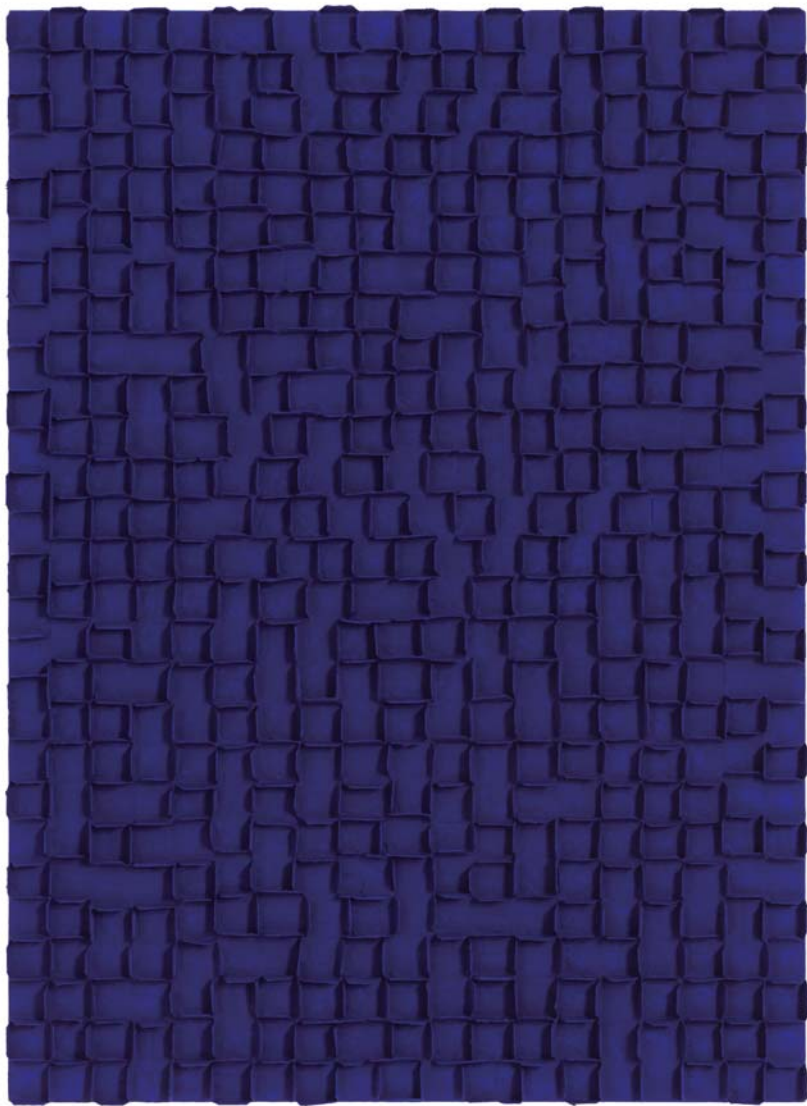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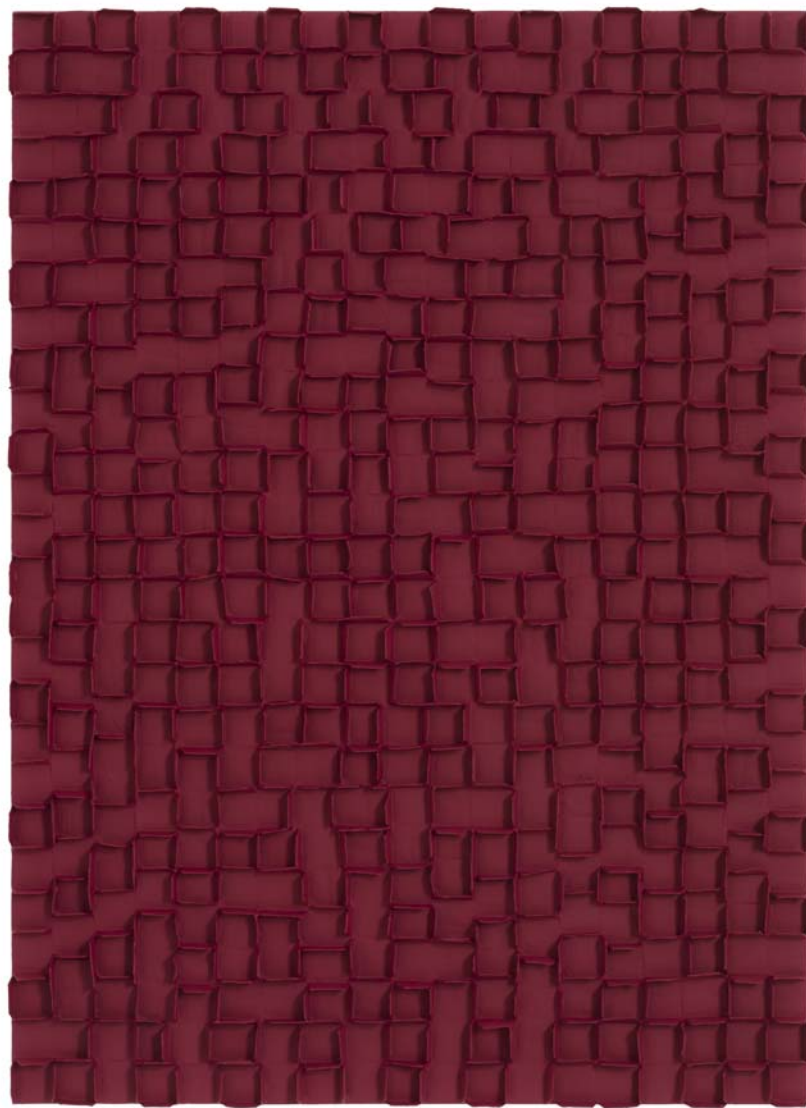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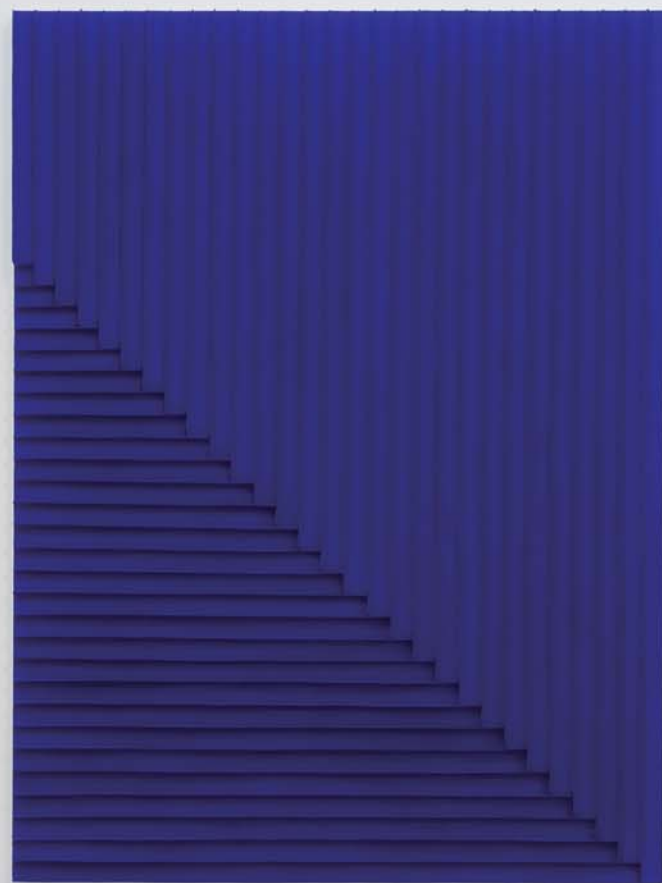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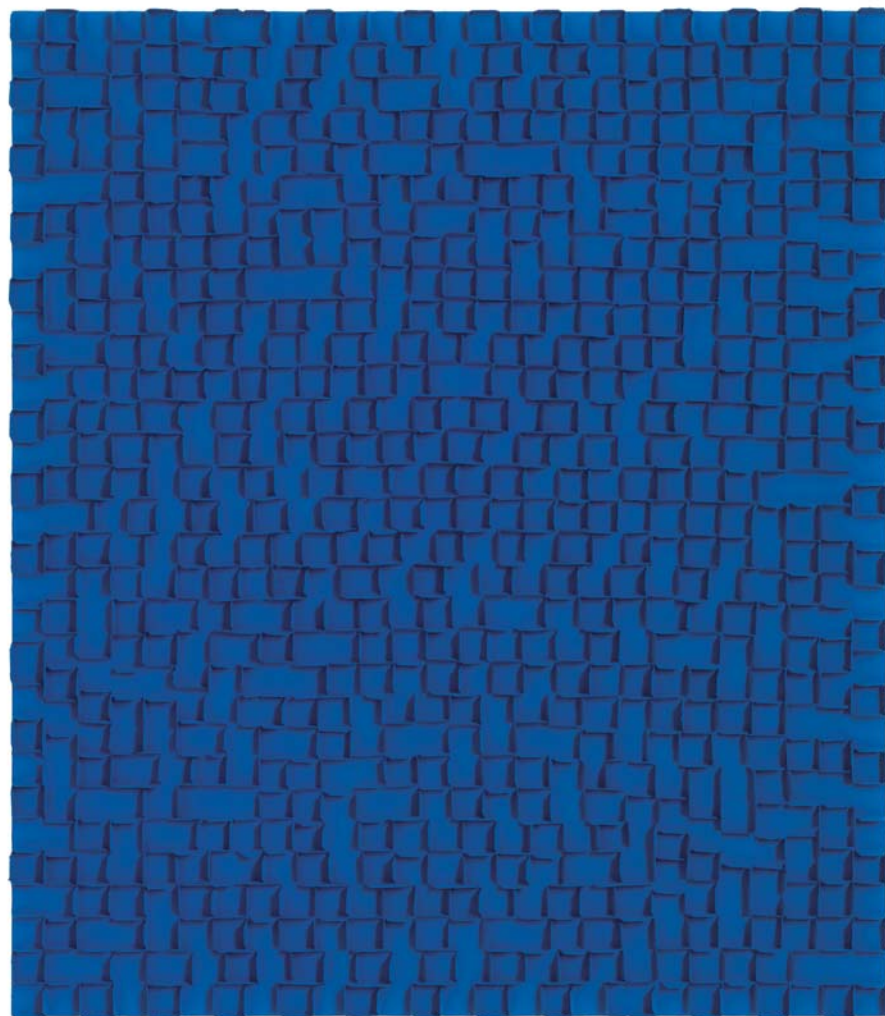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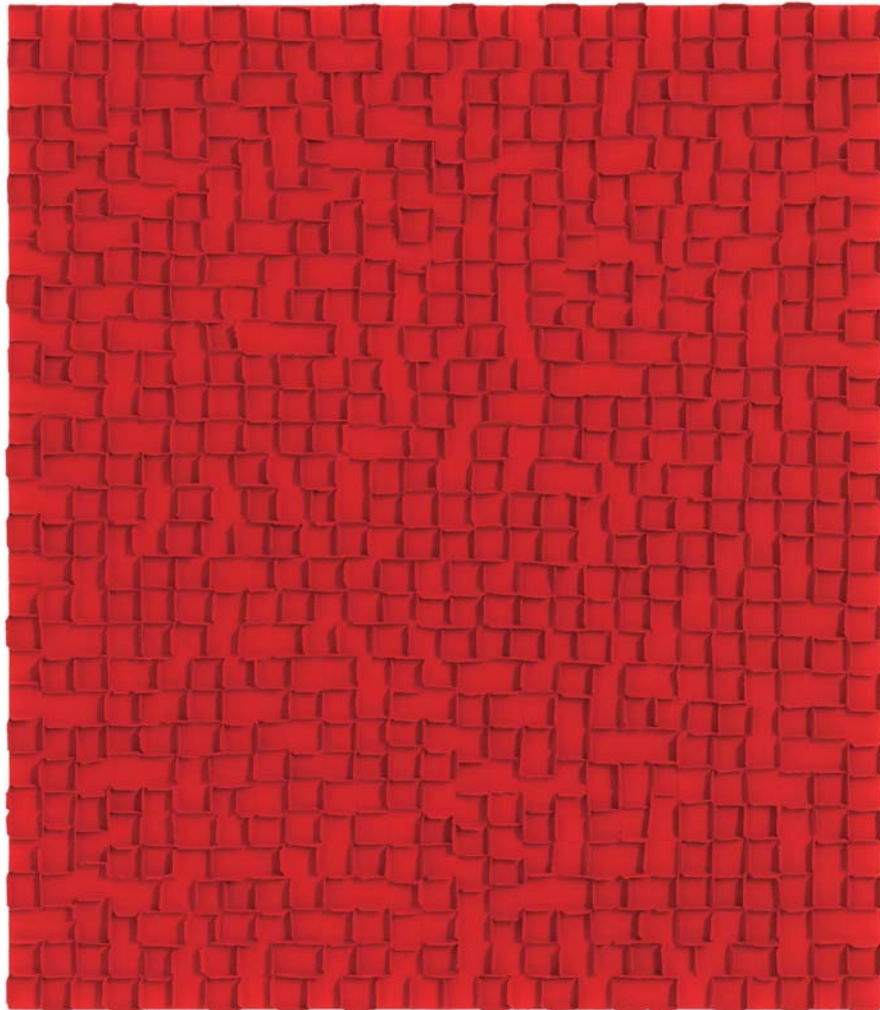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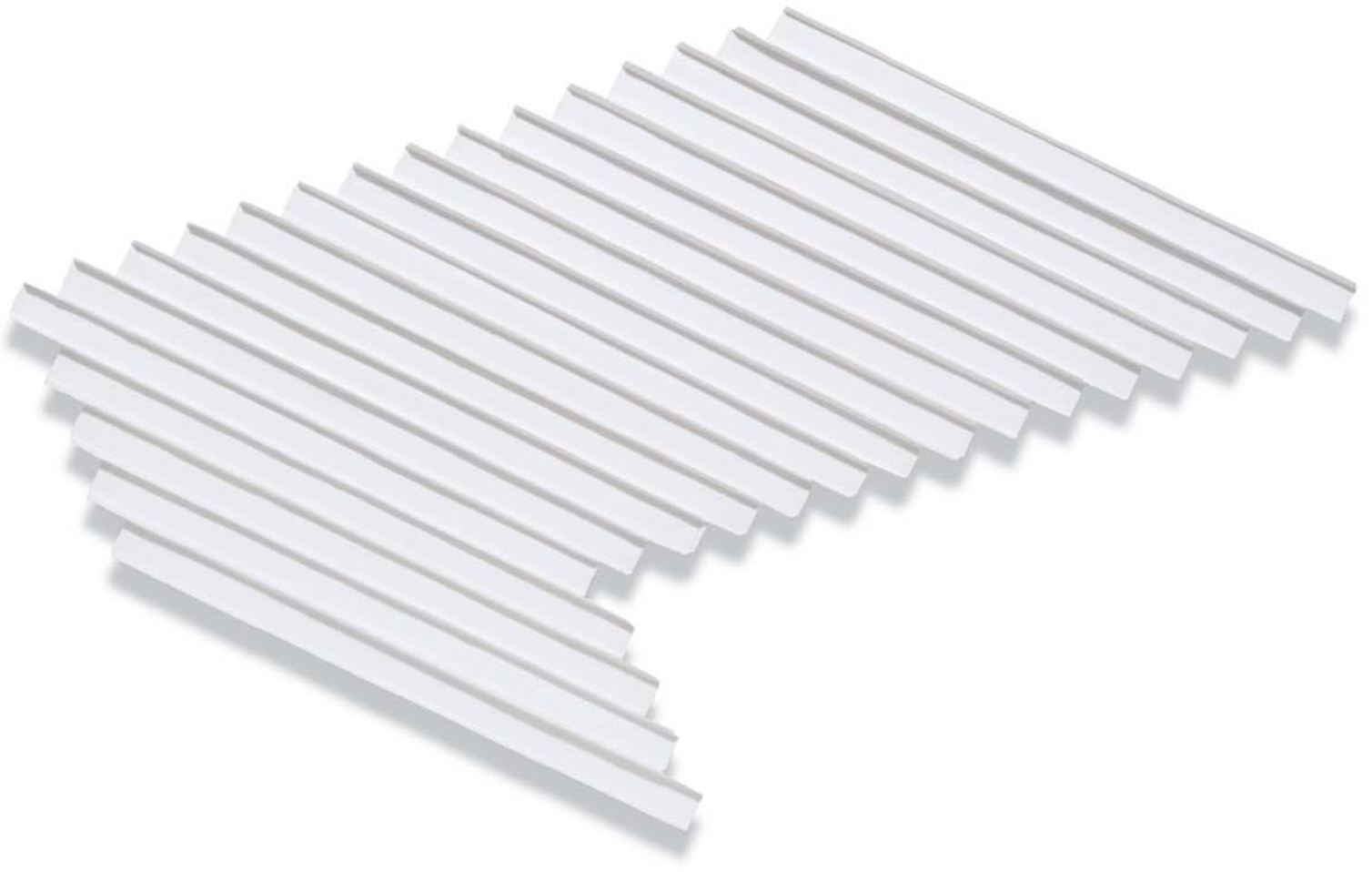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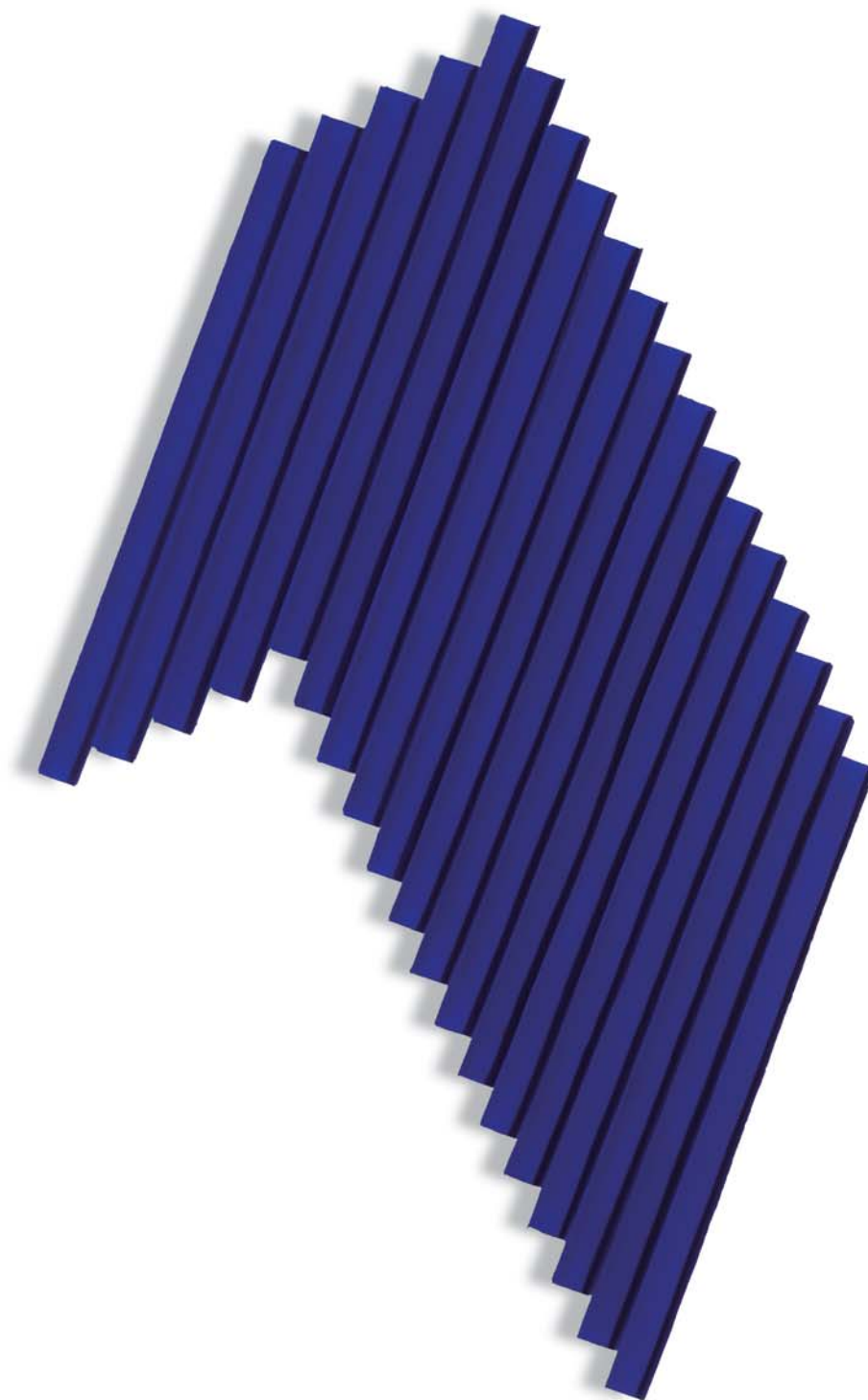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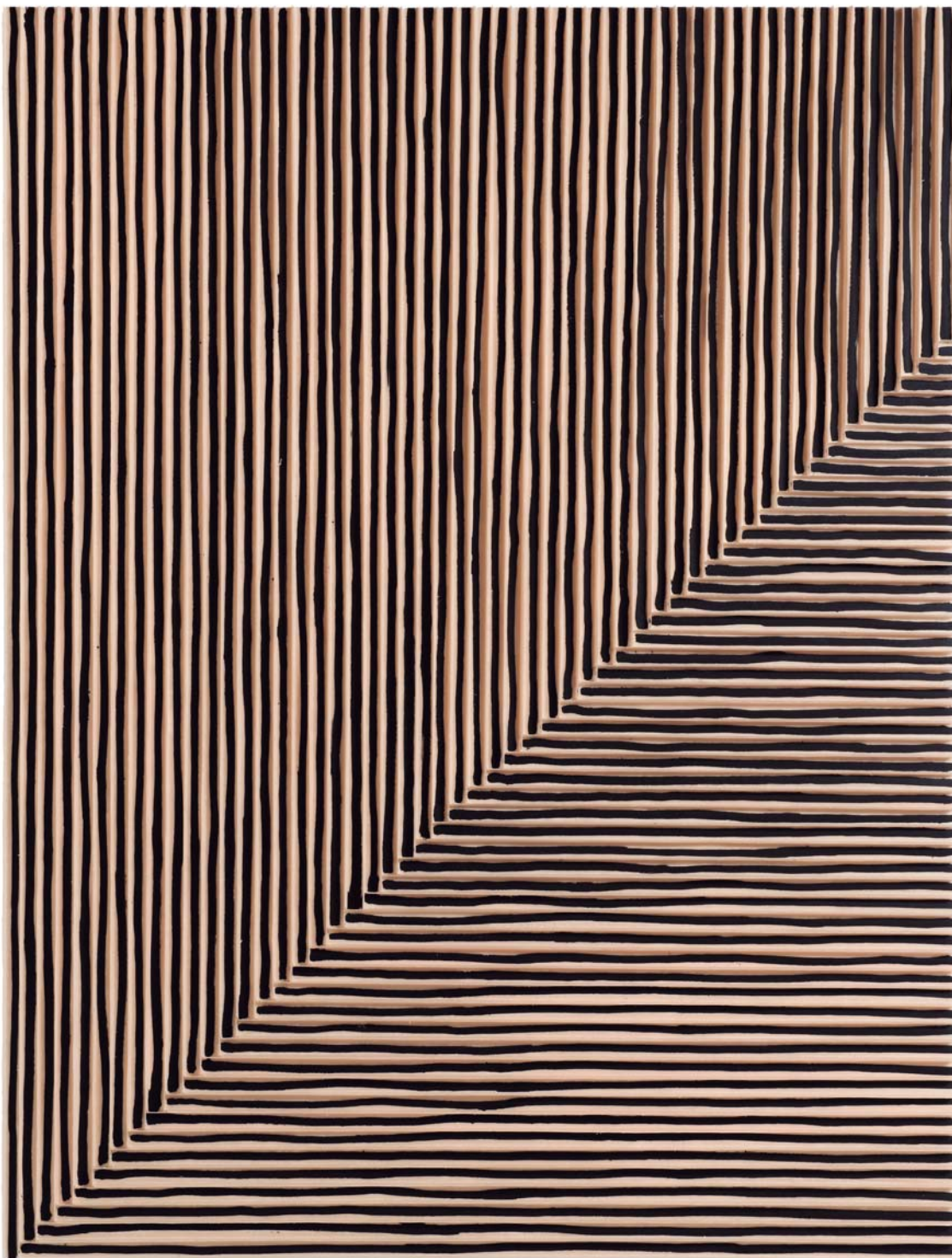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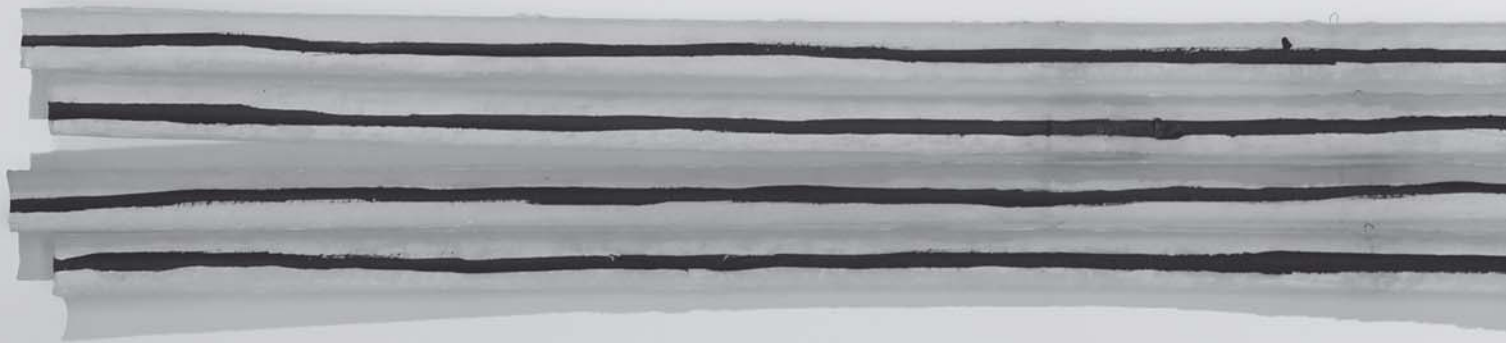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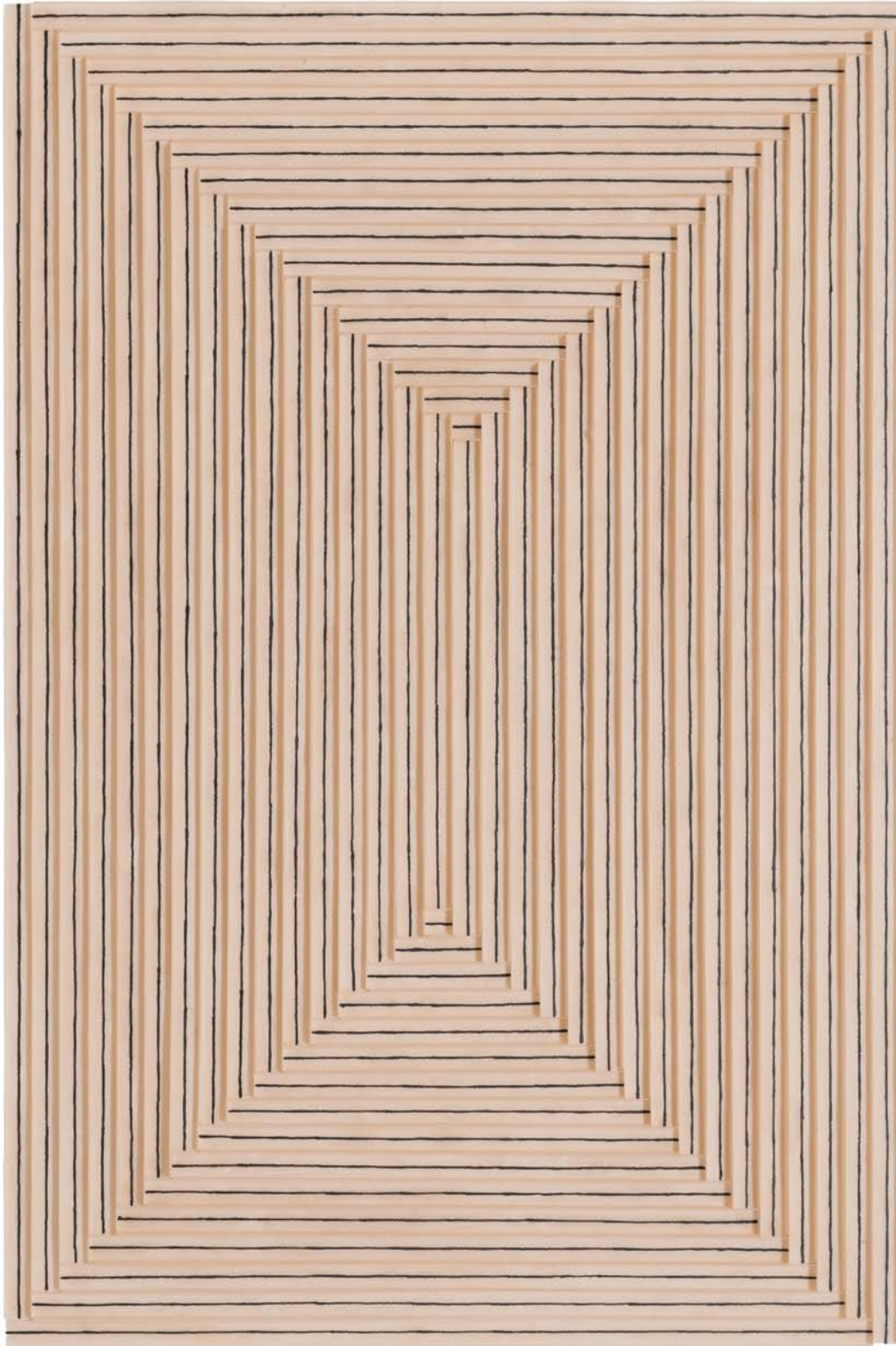
Stroke Beam
2016
Mixed Media
7 x 260 cm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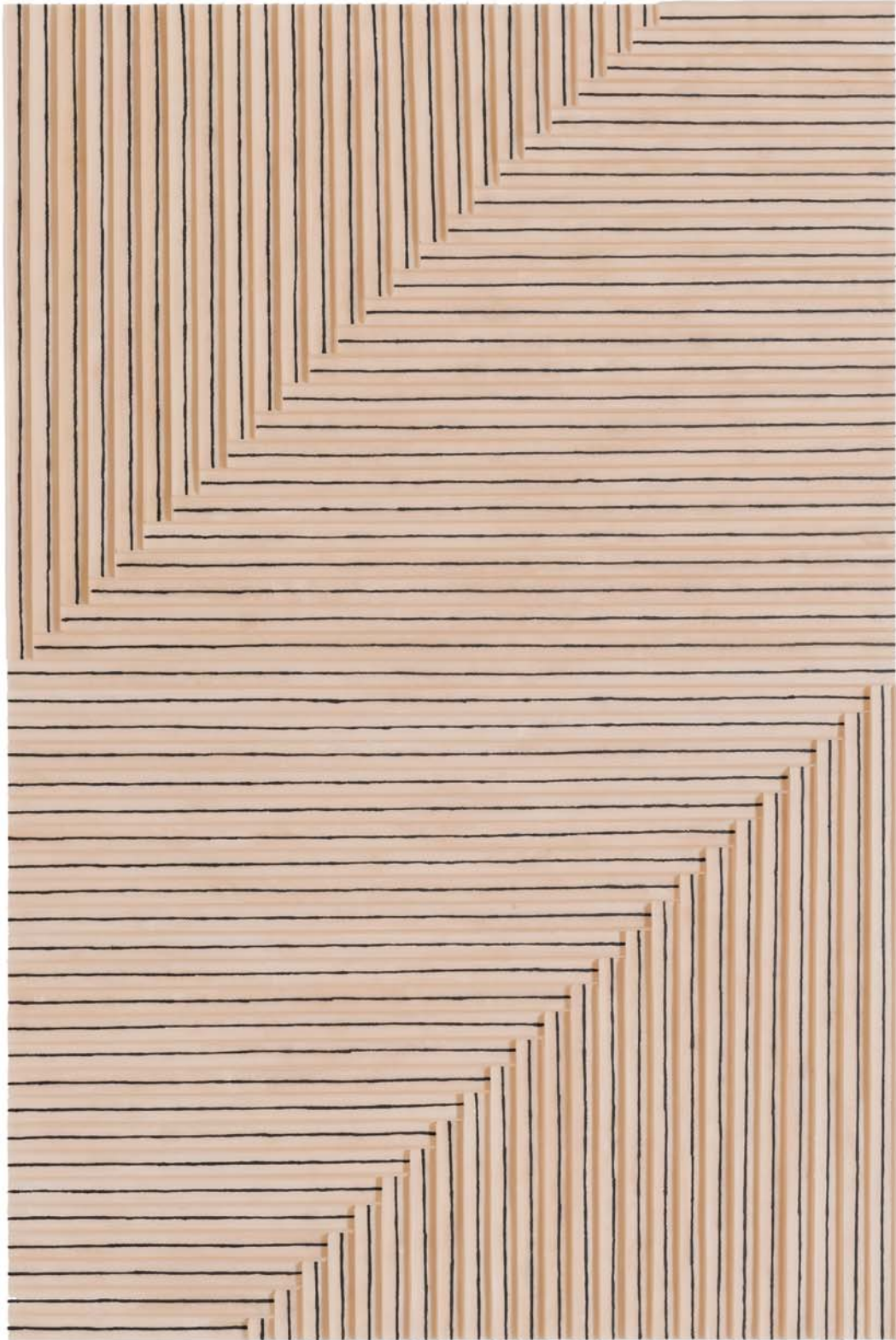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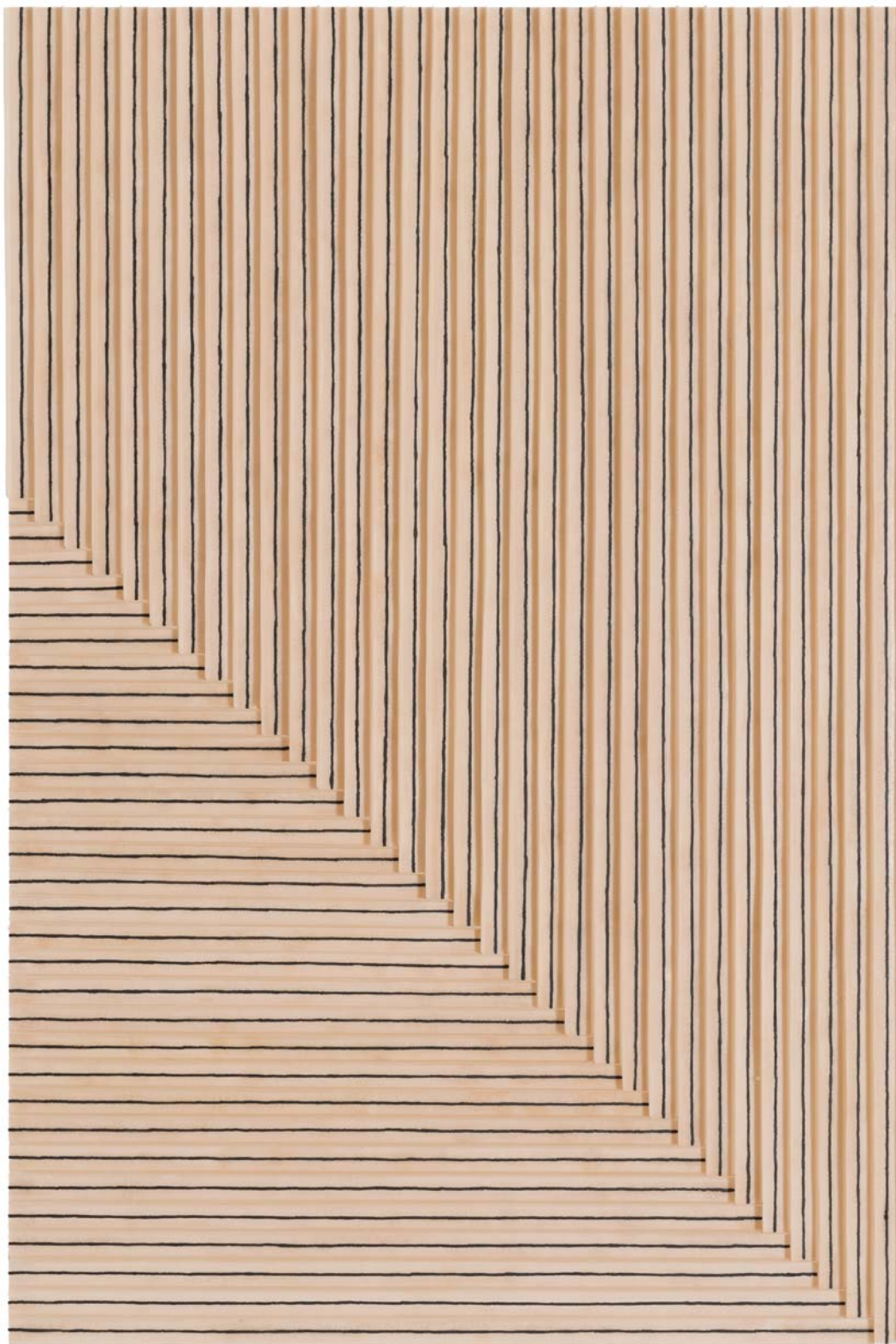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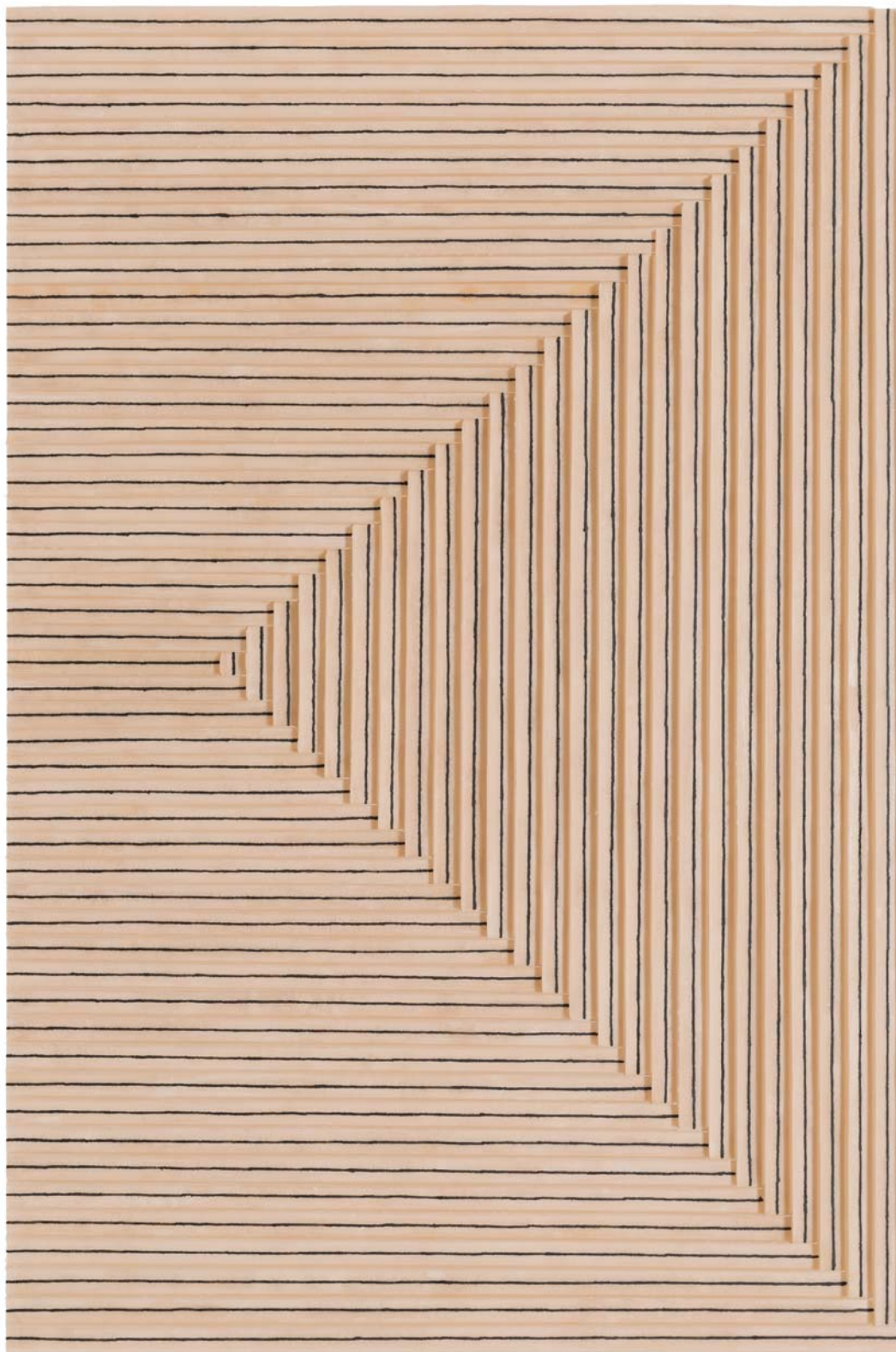














BIOGRAPHY

1961

Born in Yeongyang, South Korea

1982-88

M.F.A Keimyung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B.F.A Keimyung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Lives and works in Daegu,
South Korea and Cologne,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LEEAHN Gallery, Daegu

Art'Loft, Brussel

2015

Tchunmo Nam, LEEAHN Gallery, Seoul

Where Light and Dark Collide, Ando Fine Art, Berlin

Vienna Contemporary, Vienna

Beam 2015, Kunstraum21, Bonn

2014

Holly Hunt & Nam Tchun Mo, Holly Hunt, London

Gallery 604, Busan

Gallery Yedong, Busan

2013

Holly Hunt & Nam Tchun Mo, Holly Hunt, New York

IBU Gallery, Paris

Space Hongjee, Seoul

2012

Gallery M, Daegu

BIBI Space, Daejeon

Galerie LandskronSchneidzik, Nurnberg

2011

IBU Gallery, Paris

2010

Atelier24, Gelterkinden

Gallery Date, Busan



1961

경북 영양 출생

1982-88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현재 대구 및 독일 쾰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6

리안갤러리, 대구

Art'Loft, 브뤼셀

2015

남춘모, 리안갤러리, 서울

Where Light and Dark Collide, 안도 파인 아트, 베를린

비엔나 컨템포러리, 비엔나

Beam 2015, 쿤스트raum21, 본

2009

IBU Gallery, Paris
Seok Gallery, Daegu

2008

Gallery Uwe Sacksofsky, Heidelberg
Gallery F5, Beijing

2007

CAIS Gallery, Seoul
Seok Gallery, Daegu

2005

Atelier24, Gelterkinden
Lee Hyun Gallery, Daegu

2004

Blaue Gallery, Schneck
Galerie Hana, Kronberg
Johyun Gallery, Busan

2003

CAIS Gallery, Seoul

2002

Lee Hyun Gallery, Daegu

2001

Park Ryu Sook Gallery, Seoul
Kumho Museum of Art, Seoul
Hyundai Arts Center, Ulsan
Gallery M, Daegu

2000

Ci Gong Gallery, Daegu
Johyun Gallery, Busan

1998

Ci Gong Gallery, Daegu

1996

Ci Gong Gallery, Daegu

1994

Galerie Epikur, Wuppertal

2014

Holly Hunt & Nam Tchun Mo, 홀리 헌트, 런던
갤러리 604, 부산
갤러리 예동, 부산

2013

Holly Hunt & Nam Tchun Mo, 홀리 헌트, 뉴욕
IBU 갤러리, 파리
스페이스 홍지, 서울

2012

갤러리 M, 대구
BIBI 스페이스, 대전
갤러리 랑스코인나인직, 뉘렌베르그

2011

IBU갤러리, 파리

2010

아뜰리에24, 겐트킨더
갤러리 데이트, 부산

2009

IBU갤러리, 파리
석 갤러리, 대구

2008

갤러리 우베 삭소프스키, 하이델베르그
갤러리 F5, 베이징

2007

카이스 갤러리, 서울
석 갤러리, 대구

2005

아뜰리에24, 겐트킨더
이현 갤러리, 대구

2004

갤러리 브라우네, 쾰른
갤러리 하나, 크롬베르그
조현 갤러리, 부산

2003

카이스 갤러리, 서울

1993

Gallery XAS-multikult, Frankfurt

1992

Dubitz Gallery, Daegu

1989

Yemak Gallery, Daegu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1-)

2016

Made in the EAST, MDZ Art gallery, Knokke
Kunsttage Winningen, Winningen

2015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Leading Artists 2015, Daegu Art Center, Daegu
Korean Contemporary Art,
Ulsan Culture Art Center, Ulsan
Nam Tchunmo & Christopher Lehmphuhl,
Gallery Chungdam, Cheongdo

2014

AHA, Kunstraum21, Bonn
Blue & D major, Ilju&Seonhwa Gallery, Seoul
Painting not Painting, Park Ryu Sook Gallery, Seoul

2013

10th Anniversary of Gallery Bernd A. Lausberg,
Gallery Bernd A. Lausberg, Dusseldorf
The Exhibition of 3 Artists, Dongwon Gallery, Daegu
Reconfiguring Contemporary Art:
From a Korea Perspective, ICAS, Singapore

2012

Monochrome in Korea,
Galerie Dorothea van der Koelen, Mainz
D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Light & Color, Space BBK, Cologne

2002

이현 갤러리, 대구

2001

박여숙 화랑, 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현대예술관, 울산
갤러리 M, 대구

2000

시공 갤러리, 대구
조현 갤러리, 부산

1998

시공 갤러리, 대구

1996

시공 갤러리, 대구

1994

갤러리 에피쿠르, 부퍼탈

1993

갤러리 삭스-물티골트, 프랑크푸르트

1992

두빛 갤러리, 대구

1989

에맥 화랑, 대구

그룹전(2001-)

2016

Made in the EAST, MDZ Art 갤러리, 크노케
쿤스트타게 비닝겐, 비닝겐

2015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Leading Artists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춘모 & 크리스토퍼 램폴, 갤러리 청담, 청도

2011

Made in Daegu, Daegu Art Museum, Daegu
 Konkrete Abstraktion,
 Gallery Bernd A. Lausberg, Dusseldorf
 The Exhibition of 3 Artists, Gallery Chungdam, Daegu
 Minimal Esthetics, Tong-In Auction Gallery, Seoul

2010

Iwami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Iwami
 In Side Out,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The Young Artists of Today, Daegu Arts Center, Daegu
 Art-Karlsruhe, Gallery Uwe Sacksofsky, Karlsruhe

2009

Rhythm, Forms, and Intimacy: Spectrum,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New Painting, yfo gallery, Daegu
 Painted Painting, Art Park, Seoul
 Two Persons Show, IBU Gallery, Paris
 Art-Karlsruhe, Gallery Uwe Sacksofsky, Karlsruhe

2008

Vacuum Space, Gallery Ssamzie, Seoul
 Color, Face, Space, Gallery Mokkumto, Seoul
 Hong Kong Art fair, CAIS Gallery, Hong Kong
 Sh Contemporary, Park Ryu Sook Gallery, Shanghai
 Art-Karlsruhe, Gallery Uwe Sacksofsky, Heidelberg
 Color, Face, Space, Gallery Jeon, Daegu

2007

IBU Gallery, Paris
 Art in Life, Molteni&C, Seoul
 KIAF, Hankeesook Gallery, Seoul
 CIGE, Park Ryu Sook Gallery, Beijing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Cologne
 Sh Contemporary, Park Ryu Sook Gallery, Shanghai

2006

Light & Mind, Shin Museum of Art, Cheongju
 Sea Art Festival, Busan Biennale 2006, Busan
 Quadrangle's Colors, M Gallery, Daegu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Cologne
 Melbourne Art Fair, Samte Gallery, Melbourne
 Art-Karlsruhe, Gallery Uwe Sacksofsky, Karlsruhe

2014

AHA, 쿤스트라움21, 본
 블루 & D 장조, 일주&선화 갤러리, 서울
 Painting not Painting, 박여숙 화랑, 서울

2013

갤러리 번드 A. 라우스버그 10주년 기념전,
 갤러리 번드 A. 라우스버그, 뒤셀도르프
 3인전, 동원 화랑, 대구
 한국 현대미술의 재구성, ICAS, 싱가포르

2012

한국의 모노크롬, Dorothea van der koelen 갤러리, 마인츠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빛과 색, Space BBK, 필른

2011

Made in Daegu, 대구미술관, 대구
 Konkrete Abstraktion,
 갤러리 번드 A. 라우스베르그, 뒤셀도르프
 3인전, 청담 갤러리, 대구
 절제된 미학, 통인 옥션 갤러리, 서울

2010

이와미 국제현대미술제, 이와미
 In Side Out, 봉산문화센터, 대구
 오늘의 청년 작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아트-카를수루에, 갤러리 우베 삭소프스키, 카를수루에

2009

리듬, 조형, 교감: 스펙트럼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New Painting, yfo 갤러리, 대구
 Painted Painting, 아트 파크, 서울
 2인전, IBU 갤러리, 파리
 아트-카를수루에, 갤러리 우베 삭소프스키, 카를수루에

2008

진공의 공간, 갤러리 씬지, 서울
 색, 면, 공간, 목금토 갤러리, 서울
 홍콩 아트 페어, 카이스 갤러리, 홍콩
 상하이 컨템포러리, 박여숙 화랑, 상하이
 아트-카를수루에, 갤러리 우베 삭소프스키, 하이델베르크
 색, 면, 선, 전 갤러리, 대구

2005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Cologne
 Art Karlsruhe, Gallery Kohinoor, Karlsruhe

2004

Monochrome Paintings of Korea: Past and Present,
 Seoul Museum of Art, Seoul
 15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Kumho Museum of Art, Seoul
 Nam Tchunmo-Bitzigeio,
 Landtag Rheinland-Pfalz, Mainz
 SUM of the Contemporary, Daegu Art Center, Daegu
 Begegnung Tanz-Industrie, Achen
 Nagasaki Contemporary Art Show, Nagasaki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Cologne

2003

Extreme Beauty, Sungkok Art Museum, Seoul
 A Pleasant Workshop, Seoul Museum of Art, Seoul
 Happiness, art space M-POST, Seoul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Park Ryu Sook Gallery, Seoul
 San Francisco Art Fair,
 Park Ryu Sook Gallery, San Francisco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Cologne
 Shanghai Art Fair, Johyun Gallery, Shanghai

2002

Aesthetic Meeting, Nine Gallery, Gwangju
 Daegu Contemporary Art Show,
 Daegu Art Center, Daegu
 Korean Contemporary Art, Daegu Art Center, Daegu
 September 9 Artists, BIBI Space, Daejeon
 Art Cologne, Park Ryu Sook Gallery, Seoul
 Share Living and Joy, Park Ryu Sook Gallery, Seoul
 Art Basel in Miami, Park Ryu Sook Gallery, Miami
 Melbourne Art Fair, Park Ryu Sook Gallery, Melbourne
 Chicago Art Fair, Park Ryu Sook Gallery, Chicago

2001

Korea Art 2001: Return to Paint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Refreshment, Sungkok Art Museum, Seoul

2007

IBU 갤러리, 파리
 Art in Life, 몰데니&C, 서울
 KIAF, 한기숙 갤러리, 서울
 CIGE, 박여숙 화랑, 베이징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상하이 컨템포러리, 박여숙 화랑, 상하이

2006

빛과 마음전, 신미술관, 청주
 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 부산
 사각의 색채, M갤러리, 대구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멜버른 아트페어, 삼테 갤러리, 멜버른
 아트-카를수르에, 갤러리 우베 삭소프스키, 카를수르에

2005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아트-카를수르에, 코이누르 갤러리, 카를수르에

2004

한국평면회화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개관 15주년 특별전, 금호미술관, 서울
 남춘모-비치가이오전, 라인란드 팔쯔주 국회의사당, 마인쯔
 SUM of the Contemporary,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현대기계기술과 춤의 만남, 아헨
 나가사키 현대미술전, 나가사키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2003

아름다움전, 성곡미술관, 서울
 유쾌한 공작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행복, 아트 스페이스 M-POST, 서울
 20주년 기념전, 박여숙 화랑, 서울
 샌프란시스코 아트 페어, 박여숙 화랑, 샌프란시스코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상하이 아트페어, 조현 갤러리, 상하이

2002

미적인 또 다른 만남전, 나인갤러리, 광주
 대구현대미술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현대미술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9월 9인전, BIBI 스페이스, 대전
 아트 쾰른, 박여숙 화랑, 쾰른
 동거동락전, 박여숙 화랑, 서울

Selected Public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Seoul Museum of Art, Seoul
Busan Museum of Art, Busan
Daegu Museum of Art, Daegu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umho Museum of Art, Seoul
Daegu Art Center, Daegu
Art Bank, Seou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ilgok
Daegu World Cup Stadium, Daegu
Daegu Distribution Complex, Daegu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Ulsan
Hotel Shilla Stay, Samsung Group, Seoul
Paradise Hotel, Busan
Christie's Auction, Dusseldorf
Schott Music Gmb, Schott Music GmbH & Co. KG, Mainz
CAD International, Miami
Galila Barzilai Hollander Collection, Belgium
Mulliez Groupe Auchan, Franc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ingdom of Sweden, Stockholm

Awards

26th, Kumbok Art Prize (2012)
10th, Ha Chong Hyun Art Prize (2010)

www.namtchunmo.com

마이애미 바젤, 박여숙 화랑, 마이애미
멜버른 아트페어, 박여숙 화랑, 멜버른
시카고 아트페어, 박여숙 화랑, 시카고

2001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休(휴)전, 성곡미술관, 서울

주요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구미술관, 대구
리움-삼성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미술은행, 서울
경북대학교 병원, 칠곡
대구 월드컵경기장, 대구
대구 종합유통센터, 대구
현대 중공업, 울산
호텔 신라 스테이, 삼성그룹, 서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크리스티 옥션, 뒤셀도르프
Schott Music Gmb, Schott Music GmbH&CO.KG, 마인쯔
CAD International, 마이애미
Galila Barzilai Hollander Collection, 벨기에
오상 그룹, 프랑스
스웨덴 한국대사관, 스톡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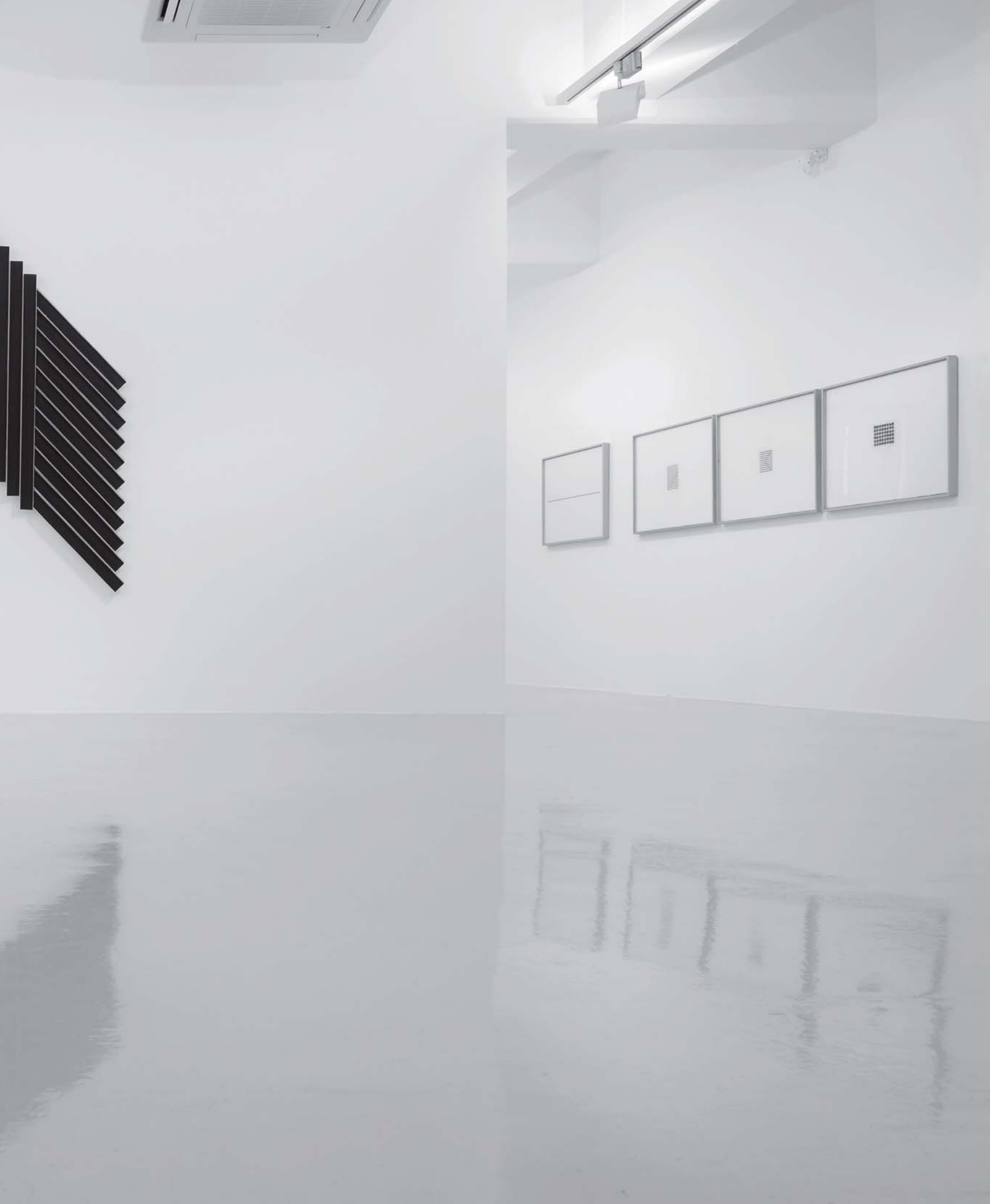
수상

제26회 금복문화상(2012)
제10회 하종현 미술상(2010)











Published by Leeahn gallery
to accompany the exhibition

NAM TCHUN MO

2015. 05.07~06.30, Leeahn Seoul

2016. 08.31~10.15, Leeahn Daegu

Artworks © 2016 Nam Tchun Mo

Essay © 2016 Yoon Jin Sup

Translation © 2016 Transdream

Catalogue © 2016 Leeahn gallery

Edited and published by Leeahn gallery

Designed by Martianstory

Photographed by An Dong Il, Park Myeong Rae, Park Jin Woo

Printed by Boram Printing, Korea

First edition, 1,000 cop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distributed, posted,
or reproduced in any form by digital or mechanical
means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LEEAHN SEOUL

9, Jahamun-ro, 12-gil, Jongno-gu, Seoul, Korea 03043

T. +82 2 730 2243 / F. +82 2 512 2243

LEEAHN DAEGU

188-1, Icheon-ro, Jung-gu, Daegu, Korea 41956

T. +82 53 424 2203 / F. +82 53 426 2203

www.leeahngallery.com

